

2005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6. 1

통 일 부

목 차

1. 경제정책 방향

가. 경제정책 여건	1
나. 2005년도 경제정책 방향	2

2. 재정·예산

가. 2004년 예산집행 결산	4
나. 2005년 예산	5
다. 평 가	6

3. 주요산업별 동향

가. 농림수산업	8
나. 광·공업	23
다. 수송운수 및 정보통신산업	47
라. 도시경영 및 주택건설	53

4. 대외 무역 및 경제협력 동향

가. 대외 무역	55
나. 대외경제 협력 동향	55

5. 경제관리 개선 및 주민생활

가. 세부정책 목표	65
나. 경제관리 개선 추진 동향	65
다. 평 가	67

6. 종합평가 및 전망

가. 경제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69
나. 재정 · 예산	70
다. 농림수산업	71
라. 광공업	72
마. 수송운수 및 정보통신산업	76
바. 대외경제관계 및 무역	77
사. 경제관리 개선 및 주민생활 여건	77
아. 전 망	78

부 록

부록 1. 2005년도 경제분야 관련 행사 개최 현황	79
부록 2. 2005년도 주요 경제건설 실적	82
부록 3. 2005년도 북한경제 주요일지	86

1. 경제정책 방향

가. 경제정책 여건

- '05년도는 노동당 창건 60돌이 되는 해로서 북한은 대내 정치적 측면에서 90년대 이후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북한 경제를 가시적으로 추켜세울 수 있는 새로운 전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입장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및 최고인민회의 보고를 통해 '04년도에는 경제건설 및 산업생산 실적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05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세부정책 목표를 제시
 - ※ “지난해에는 전력,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주요전선에서 최근년에 볼 수 없었던 생산증가가 이루어지고, 종자혁명, 대규모 토지정리 사업,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혁명수행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다”(‘05. 1.1 신년공동사설)

- 그러나 '05년도 경제정책 추진여건은 90년대 이후의 장기침체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약화 등으로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
 - 경제관리 개선조치('02.7.1)이후 지속되고 있는 높은 물가 상승과 북한원화 가치의 하락
 -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의 확대와 주민불만 증대
 - 국제수지 및 예산의 적자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
 - 핵문제·인권문제 등 국제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의 피로감 누적 등 자본·기술도입에 필요한 국제협력 여건 미성숙

나. 2005년도 경제정책 방향

-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05년도 추진할 정책의 기본과업과 방향을 제시
- '05년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당 창건 60돌, 조국광복 60돌을 대축전으로 빛낸다는 것을 총적 투쟁 과업(기본과업)으로 설정
-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선군혁명노선에 따라 국방공업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조
- 또한 농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하고 석탄·전력·금속·철도운수 등 경제의 선행부문과 경공업 현대화에 주력
 - 모든 것을 농사에 집중하여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농촌을 지원
 -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도 대고조를 이룩
 - 경공업 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
 - 평양시 개건 및 도시·농촌주택 대량 건설

- 경제관리 면에서는 “우리 식의 경제관리 체제와 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 조직 사업을 전개
 - 생산의 전문화 및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도입
 -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으로 경제의 현대화 및 정보화를 추진
 - 경제 사업에 대한 내각의 역할 제고 등
-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3차 회의('05.4.11)에서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04년 사업정형과 '05년 과업」 보고를 통해 '05년도 주요 경제과업에 대한 세부정책 목표와 방도를 제시
 -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하여 식량문제·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
 -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선행부문에 계속 역량을 집중, 연료·동력·철강재문제와 수송문제 해결

2. 재정·예산

북한은 '02년 7.1조치 이후 2년간에 걸쳐 예산금액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05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회의(4.11)에서 예산 규모를 처음으로 발표

가. 2004년 예산집행 결산

- '04년에는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달성
 - 재정의 유일관리체계를 강화, 재정이 선군재정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며,
 - 지출위주로부터 수입위주의 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 농업부문의 경영계산을 과학화
- 예산지출금액은 '04년 예산의 99.3%인 3,488억 700만원으로 결산
 -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민경제비가 지출총액의 41.3%(1,441억원), 사회문화비 40.8%(1,423억원), 군사비 15.6%(544억원)
 - ※ 관리비는 지출총액의 2.3%(80억원)로 판단
- 예산 수입금액은 3,375억 4,600만원으로 지출보다 112억 6,100만원의 적자를 기록

< 2004년도 결산 >

단위: 억원 %

수입총액	지출총액	항목별 지출액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관리비
3,375.5	3,488.1 (100)	1,440.1 (41.3)	1,423.1 (40.8)	544.1 (15.6)	80.3 (2.3)

나. 2005년 예산

- 예산수입금액은 전년비 15.1% 증가(3,885억원)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수입 항목별 금액이나 구성비는 발표하지 않고 일부 항목의 전년비 증가율만 발표
 - 국가기업이득금은 전년비 13.5% 증가, 협동단체이득금은 전년비 8.4% 증가, 사회보험 3% 증가
- 예산지출금액은 전년비 11.4% 늘려서 책정
 - 지출 항목별로는 군사비에 대해서만 전체 예산지출액의 15.9%(618억원)로 발표하고 나머지 항목은 전년비 증가율로 발표
 - 인민경제비 중 농업부문 예산은 전년비 29.1%증가, 과학기술부문 예산은 전년비 14.7%증가, 인민적 시책비는 전년비 10.3% 증가
- '05년에는 예산수입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 비생산적 지출을 줄이고 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화폐유통과 물가안정 및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것을 강조

다. 평가

- '05년도 북한의 예산 규모(3,885억원)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전인 '02년 예산총액(221.7억원)의 약 17.5배 수준으로 증가
 - 이같은 예산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가격·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약 25배)과 임금인상(약 18배)에 기인
-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인 북한 예산규모는 '02년 예산의 70% 이하로 줄어든 수준
 - 또한 '05년도 예산액을 미달러로 환산하면 약 28.7억 달러에 불과하여 '01년 예산집행 금액의 30% 정도로 줄어든 수준
- '05년 북한예산의 실질적인 감소는 7. 1조치에 따라, 예산 지출면에서는 식량수매 및 공급가격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지출 감소, 예산수입 면에서는 세입항목 및 구조개편 과정에서 혼란으로 인한 세수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이같은 이유로 북한은 '04년 예산집행 결산보고에서 “지난해에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했다고 언급
- '05년 예산수입 항목별로 본 특징의 하나는 국가기업이득금 수입 증가율을 전년비 13.5%로 가장 높게 책정하고, 고정재산 감가상각금과 여러가지 형태의 수입금을 국가예산 수입에 집중하기로 한 것

-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업의 생산 실적에 따라 일정부분을 기업에 유보할 수 있도록 했던 국가기업이득금이나 감가상각금 등을 다시 국가예산 수입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정책변화를 의미
 -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금”이라고 언급한 것은 협동농장이나 기관·사회단체 소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주민제세 등에 대한 징수율을 더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
 - 이는 발표된 예산수입 항목별 증가율이 모두 총 예산수입 증가율(15.1%)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 예산지출 항목에서 지출 총액에 대한 군사비 비중(15.9%)만 발표했을 뿐 타 지출항목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다만 당해연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부문의 세항별 전년비 증가율만 발표(농업부문 전년비 29.1%, 과학기술부문 4.7%, 인민적시책비 10.3% 증가)
- 예산수지면에서 '04년도에는 지출총액의 3%에 이르는 대폭적인 적자(112.6억원)를 기록한 것이 특징
- 이는 균형예산 편성·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
 - 적자발생 요인은 생산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 '02. 7.1조치의 가격임금체계 개편과 예산납부 방식 변경이후 중앙과 지방 예산 수입에 대한 예산당국의 조정능력 저하 등으로 추정

3. 주요산업별 동향

가. 농림수산업

(1) 세부정책목표

- 박봉주 내각총리는 「선군혁명 총진군대회」 보고를 통해 “농업 전선은 현 시기 우리가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공전선”임을 재확인
 - 종자혁명 방침, 감자농사혁명 방침, 두벌농사 방침을 비롯하여 콩농사를 잘할 것에 대한 방침 등을 철저히 관철하고
 -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우리 식’ 으로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을 ‘05년도 농업부문의 세부정책 목표로 제시
- ※ 박봉주 총리는 어려운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적들의 반공화국 암살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식 사회주의 수호를 위한 중대 문제”라고 강조 (‘05. 2. 2)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회의에서도 박봉주 총리는 내각의 「’04년 사업정형과 ’05년 과업」 보고를 통해 ‘05년도 농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곡물증산’에 두었음을 재천명
 - 다수확품종 종자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알곡과종면적 확대와 지력향상을 통해 곡물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

- 한편, 김정일은 '05. 8월 인민군 제 534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시찰시 농업부문에 대한 “강령적 과업”(9. 1)을 제시
 - ① 종자혁명방침 관철, ②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 관철, ③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 ④ 두벌농사를 잘할 것, ⑤ 영농방법의 부단한 개선, ⑥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⑦ 과일과 기름생산 증대 등
- 임업부문에서는 국토관리 사업으로 북한전역을 수림화, 원림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05년도 산림조성 계획면적을 총 10만 ha로 설정
- 수산업부문에 있어서는 '05년도에도 세부정책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음

(2) 농업기반건설

(가) 관개시설 및 간석지

<백마-철산 물길공사 준공 (10. 2)>

- 백마-철산 관개수로는 개천-태성호 수로공사 완공 직후 김정일 현지시찰시의 지시에 따라 '03. 5 착공하여 '05. 10 당창건 60돌에 맞추어 완공
 - 평안북도내 용천군, 염주군, 철산군, 동림군, 피현군, 신의주시 등 6개시·군 4만6천여 정보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 10만여 만톤의 곡물증산과 3만여kW의 전력 절감을 목표

- 노동신문은 백마-철산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를 통해 과거에 비해 양수기와 전동기, 변압기 등 400여대의 설비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수만kW의 전력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보도 (10.3)

※ 백마-철산물길은 개천-태성호 물길(관개면적 10만여 정보)과 함께 북한 서북 평야지대의 2대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를 형성

<금성간석지 내부망 공사 완공 조업 (2.25) >

- o 금성간석지는 평안남도 온천군 금성리와 증악노동자구에 위치하며, 북한이 80년대의 대자연개조사업인 “30만정보 간석지 개간 사업”중 하나로 건설을 추진
 - ‘88년 9월부터 건설을 본격 추진 ‘94년 4월에 이미 기본적인 건설을 완료 (총면적 3,300여 정보에 방조제 길이는 16 km)
 - 90년대 중반부터 6월9일농장, 금성농장 등 2개의 국영농장을 조성 (‘95. 1. 25 중통)
- o ‘05년 완공된 금성간석지 내부망 공사 총면적은 1,300여 정보로 ‘03년 12월에 착공, 그동안 수백명의 제대군인들을 배치·정착시켜 농경지를 개간하고 일부 개간된 농경지에는 ‘04년 5월 첫 파종을 실시했으며, 500m간격의 가로 세로 직선 도로 72km, 용수로 62km, 배수로 88km가 건설되고 300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도 건설
 - 내부망공사가 완료됨으로써 1,000ha가 농경지로 전환되고, 농경지 이외 200여 정보는 염전을 조성 중 (5. 12 노동)

< 대계도 간석지 제방공사 추진 >

- 대계도 간석지는 평안북도 염주군과 철산군에 걸쳐 있는 8,800여 정보의 대규모 간석지
 - 다사도에서 소계도까지 4개섬을 연결하는 총 13.6 km의 방조제 공사는 '81년 착공하여 '84년에 완공하고 제염 및 내부 개답 공사를 통해 '96년에 3,900여 정보의 개간을 완료
- '05년에 추진 중인 제방공사는 '98년 해일로 끊어진 제3호 방조제의 800여m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 '05년 6월 제3호 제방 마감막이 공사 완공 후 8월 현재 제방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 (8. 31 노동)
 - 북한은 제3호 제방공사가 완료되면 8,800여 정보의 새 땅을 얻게 된다고 보도 (6. 7 노동)

<함흥시 수동저수지 완공>

- 함경남도 함흥시 수동저수지는 '02년 건설에 착수, 3년만에 건설을 완료하고 '05년 6월초에 준공 (6. 5 중방)
 - 저수지 건설과 함께 수동천을 정비하고 100여 정보의 논을 새로 개간
- 함경남도는 수동저수지 외에도 흥남시 용신저수지, 단천시 백산저수지, 낙원군 원동저수지, 정평군 덕흥저수지, 흥원군 광명저수지, 송화군 명례군민저수지 등을 건설 및 확장공사 추진

(나) 축산시설

<광포오리 공장 개건·현대화>

- '04년부터 개건공사를 추진, '05. 4. 19 공사를 완료하고 조업
 - 연간 생산능력은 오리고기와 알 8천톤
- '05. 9. 14, 김정일이 현지지도 실시 (9. 15 중방)

<두단오리공장 개건·현대화>

- 평양시 낙랑구역의 두단오리공장은 '05년 8월 현재 개건·현대화 공사가 마감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도 (8. 5 노동)
 - 부지면적 72정보, 건축면적 11만㎡ (생산건물 60개동, 보조 건물 80개동 등 총 145개 동)의 대규모 오리공장
 - 개건·현대화 완료시 생산능력은 매년 수천톤의 오리고기와 알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북창오리공장 개건·현대화>

-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는 '05년 9월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설비조립을 완료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9. 14 노동)
 - 비육오리우리 7개동, 야외오리우리 6개동, 새끼오리우리 3개동, 부화실, 고기가공장, 먹이가공장 등 총 40개동의 건축공사를 완공
 - 9월 현재 설비조립공사가 마감단계에 있으며, 도로포장 및 울타리 공사 추진중

<구성닭공장 2단계 현대화>

- 구성닭공장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기술도입으로 개건·현대화 공사를 완공 (7. 9 조선신보)
 - 6개의 평사식 비육호동 신설, 기존의 고기가공장, 사료가공장, 부화시설 등의 시설을 현대화
 - 사료배급, 환기, 온도·빛의 조절 등 모든 양계과정을 컴퓨터로 자동 운영
 - '01년부터 2차례의 현대화공사를 추진한 결과 연간 육류(계육) 1천톤, 계란 1천만개 생산 가능

<평성시 염소목장 건설>

- 평성시 염소목장은 본장과 22여개 분장을 가진 염소목장으로 20여리의 율환선도로 등 건설을 완료하고 10.14 조업
 - 자모산 기슭에 부지 12,000m², 18개동의 공공건물과 여러동의 살림집, 700여정보 풀판, 3,600m²의 양어장과 수원지 등을 조성하고, 염소 먹이용 아카시아 250만 그루를 식재
 - 젖염소 2,000마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천마리의 염소를 사육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오리목장 개건·확장>

- 기존 오리목장을 현대적인 종합목장으로 개건 확장 (8.18 평방)
 - 종금오리사·비육오리사, 부화실 14개동, 2,000마리 이상의 종금오리와 15,000여 마리의 비육오리 사육, 매주 2,500마리 이상의 새끼오리 부화
 - 4개동의 돼지우리에 60여 마리의 종자돼지와 400여 마리의 비육돼지 사육
 - 자체 배합사료 생산으로 알곡사료 20% 이상 절약

<계남목장 3단계 확장완공>

- 황해남도 계남목장의 축산 제3분장 건설 및 각 분장의 능력 확장공사 완공 (10.18 노동)
 - 축산 제3분장은 10여동의 염소우리, 3동의 젖소우리, 우유 가공실, 우유보관갱도, 사료저장 및 가공기지 등 건설
 - 축산 제2분장은 6동의 염소우리 건축으로 능력 확장
 - 축산 제1분장은 종합 편의시설 건설

(3) 생산관련 동향

<농산부문>

- 북한은 2월초 「선군혁명 총진군대회」를 전후하여 각종 보고 및 보도를 통해 '05년은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사에 총집중·총동원하여 각종 영농물자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을 선동
 - 김정일은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면 포전마다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심는 것과 함께 관개용수와 화학비료, 농기계와 연유, 트랙터 부속품과 비닐박막 등 농업설비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지시 (2. 2 노동)

 - 이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화학공업성에서는 농사철에 앞서 제일 먼저 각종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농촌을 지원 (2.20 노동)
 - 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연유, 비닐박막 6만 m², 트랙터 부속품 수천점을 비롯한 각종 농기계 부속품 등

 - 한편 주요 평야지대에서는 연초부터 “흙보산 비료” 등 유기질 비료 생산에 주력
 - 평안북도내 각 시·군에서는 흙보산 비료 생산을 위해 '05년 니탄 생산 목표량을 100만 톤으로 설정 (2.13 노동)
 - 황해남도는 총 5,800여개의 흙보산 비료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110만톤의 흙보산 비료를 생산 (5. 5 노동)
- ※ 흙보산 비료는 흙에 치는 보약과 같다는 의미로 김일성이 이름 붙인 유기질 비료의 일종

- 내각사무국, 각 성, 과학연구기관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농사를 위한 협동작전을 전개 (5.14 노동)
 - 과학농사를 위한 중앙지휘부를 조직하고 도·시·군 단위에도 강력한 지휘체계를 조직, 전국 43개 주요 알곡생산지에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원을 파견하여 영농조건 최적화를 위한 연구사업 진행
 - 일부 협동농장에서는 콩 생산을 위한 콩 전문분조를 조직 운영
 - 농업기상 조건 예보 및 일정한 시기마다 농작물 생육예보 등을 발표

- '05년도 농작물 파종은 적기에 순조롭게 진행
 - 평안남도, 황해남도 등 주요 두벌농사지대는 3월초 앞그루 봄보리 파종, 4월초에는 황해남도 각 군에서 앞그루 감자 심기를 시작
 - 모내기는 예년과 같이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5월 10일 첫모내기를 시작, 1모작지역은 6월 10일경에 일단락 (6. 12 노동)
 - 2모작지역의 모내기는 앞그루인 하곡작물(밀, 보리, 감자) 수확이 6월 10일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6월 20일경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추정

- 또한 6월의 농업기상조건 예보에서는 6~7월 일부지방에 집중호우, 7월 중순~8월 상순 동해안지방에서는 보통정도의 한냉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 예년과는 달리 신문·방송에서 냉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피해 발생 보도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기상조건이 양호, 이례적으로 풍작을 암시

<축산부문>

- 김정일은 군 부대시설을 위주로 모두 5차례의 축산부문 현지시찰을 실시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관심을 표명
 - 1월 인민군 제 966군부대 돼지공장 시찰 (1. 29 중방)
 - 4월 인민군 제 757군부대 「4월16일 염소목장」 시찰 (9. 5 중방)
 - 9월 「광포오리공장」을 현지도도 “오리는 빨리 자라고 병에 걸리지 않으며 영양가가 높은 고기와 알을 주는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가금”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오리사육을 지시 (9. 14 중통)
 - 11월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115호 오리공장」 시찰 (11. 6 중방)
 - 12월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돼지원종장」 현지도도 (12.24 중방)
- 북한의 '05년도 축산부문의 주요 개건·현대화 대상은 광포오리공장, 두단오리공장, 강계오리공장, 북창오리공장 등 대부분이 오리 사육시설에 집중

- 양계부문에서는 유일하게 평안북도 구성닭공장의 현대화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이 공장의 닭고기 생산을 종전보다 2배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 (6. 20 노동)
- 그러나 양계부문은 지난봄 일부지역 조류독감 발생으로 수십만 마리의 감염 의심 닭들을 매몰, 소각하는 피해 발생 (3.27 중방)
 - 평양소재 2~3개 닭공장에서 지난 2. 25경에 조류독감이 발생
 -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수의방역지원회를 조직하고 긴급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남한에 대해서도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의 긴급지원을 요청
- 또한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고 농업성과 보건성 및 내각사무국, 체신성, 인민보안성 등 중앙기관으로부터 도·시·군 단위까지 수의비상방역 통보체계를 가동
 - 3~4월, 9~10월을 수의위생방역월간으로 정하고 조류독감 예방사업을 강화
 - 한편 봄철에 발생한 조류독감은 '05년 7월 완전 퇴치되었다고 선언
- 염소사육의 경우 새로운 종축장 건설 및 연구소의 지원으로 우량품종을 확대·보급하는 한편 초지(풀판)확장에 주력
 - 함경남도 함주군 재안협동농장, 정평군 장천협동농장 등 각지의 농촌에서는 '05년에 수천정보의 풀판을 새로 조성 (6. 24 중방)

- 황해북도는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340여정보의 풀판을 새로 조성 (6. 7 평방)
-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과 황해남도 계남목장에서는 농업과학원 축산연구소와의 협조로 한 대 사이에 우량품종 염소 두수가 각각 1.5배로 증가(6. 24 중방)
- o '05년도 일부지역의 풀먹는 집짐승 두수가 전년비 1.2배로 증가하였다고 주장

<수산업부문>

- o '05년도 북한의 주요행사 보고서나 신문·방송 보도에서 수산업 부문의 생산동향에 대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
- o 다만 '05년 5월의 인민경제계획 성과보도에서 문덕수산사업소가 월간 물고기 생산계획을 39% 초과 수행하였고 한천수산사업소가 월간 수산물 생산계획을 60%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도 (6. 2 중방)
- o 이같은 상황은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급사정 악화와 특히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업 생산활동 지원에 정책우선이 주어짐으로써 어선출어에 필요한 유류공급이 부족했던 데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임업부문>

- '05년 임업부문 기관·기업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탄광에 필요한 동발나무를 차질 없이 생산보장 하는 것이라고 강조

※ 노동신문은 “임업부문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현 시기 동발나무 생산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 동발나무 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 (3. 15 노동)

- 함경북도 임업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 임산사업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서둘러 “10월축전 대돌격전”에 돌입 (5.7 노동)
 - 강원도 내 임산사업소 등 일부 사업소들은 5월 인민경제 계획을 5%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도(6. 3 중방)
- 당창건 60돌 경제실적 보도에서는 임업부문에서의 통나무 생산실적이 '04년 같은 시기에 비해 12.5% 증가했다고 선전
 - 송원, 희천, 동신, 성간, 용림, 강계, 낭림, 장진, 정평, 수동 등 임산사업소들은 '05년도 인민경제 계획을 조기 완수

(4) 평가

- '05년도 북한의 농업정책방향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사회주의 체제 수호의 관건적 요소로 인식하고 곡물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

- 대자연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간석지개간, 토지정리, 관개수로건설 등 대규모 기본건설 사업에 일부 성과
 - '03년 5월에 착공한 백마-철산 관개수로건설이 완공되어 개천-태성호 관개수로('02년 완공)와 함께 평안남·북도 곡창지대의 자연 흐름식 관개체계가 완성된 것은 농업기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평가
 - ※ 북한은 백마-철산 관개수로가 완공됨으로써 총 4만 6천여 정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 연간 10만톤의 곡물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
 - 간석지 건설 부문은 금성간석지 내부망공사의 완공, 해일 피해로 유실되었던 대계도 간석지의 3호제방 복구공사 추진
 - 토지정리사업 부문은 함경북도 라선시 토지정리 3단계 사업만 지방 행정단위 자체역량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 (11.17 중방)
 - ※ '04년 평안남도과 평양시, 남포시 토지정리사업을 마무리한 후 나머지 지역은 각 지방이 자체역량을 동원하여 수행한 것으로 방침을 설정
- '05년도 곡물생산은 기상조건의 순조, 화학비료 공급량 증대, 인력과 영농자재 집중지원 등에 힘입어 전년비 5.3%증가한 454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
 - 파종 및 생육기간 중 강우량, 온도, 일조량 등 기상조건이 양호했으며 집중호우, 태풍, 해일의 피해도 전무
 - '04년부터 화학비료 자체 생산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05년도 남한의 대북 지원량도 증가

※ FAO는 '04년도 북한 화학비료 생산량이 전년비 75%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05년도 남한의 비료지원량은 총 35만톤으로 전년보다 5만톤 증가

○ '05년도 축산부문에서는 기존 가금류 사육장의 개진·확장 및 시설현대화에 주력하였으나 봄철의 조류독감 발생으로 '05년도 양계 생산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평가

- 북한은 조류독감 발생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닭 수십만 마리를 매몰·소각처리한 것으로 공식발표 (3.27 중통)

※ 그러나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염소 등 풀 먹는 짐승의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주장

○ 수산업부문은 '05년에도 투자부족에 따른 어선세력의 약화와 유류부족에 따른 출어일수 부족 등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당창건 60돌 경제실적 보도에도 수산부문 실적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다만 상반기 실적 발표시 문덕수산사업소와 우암수산사업소가 상반기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

○ 임업부문에서는 자강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및 함경북도의 각지 임산사업소가 상반기 계획을 완수하였고, '05. 10월 현재 10여개 임산사업소가 연간계획을 조기 완수했다는 보도로 보아 연도중 생산실적은 다소 증가된 것으로 평가

※ '05. 9월말 현재 통나무 생산실적은 전년 동기비 12.5% 증가한 것으로 보도 ('05. 10. 7 중통)

나. 광·공업

(1) 석탄공업부문

<세부정책목표>

- '05년도 석탄공업부문의 세부정책 목표는
 - 모든 탄광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채탄에 선진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석탄생산을 정상화 하고
 - 채굴전망이 좋은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연간 100만 ~ 150만톤의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며
 - 특히 함남지구와 북부지구 탄광들의 석탄생산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는 데 목표를 두었음

<주요 건설 동향>

- '05. 3월 5개 탄광연합기업소 산하 8개 탄광에서 생산능력 확장공사 추진
 -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산하 용등탄광의 생산능력 확장 공사
 -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산하 남양탄광 생산능력 확장, 제남탄광의 새 채탄장 확장 및 제2단계 벨트콘베이어 공사
 - 북창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산하 남덕탄광의 갱내운반로 복선공사

-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산하 2.8직동청년탄광 및 천성청년탄광 벨트콘베이어 정비·보강 및 새로운 채탄법 도입
 -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산하 봉천탄광의 수해침수구역 복구, 신창청년탄광 배수계통설비 현대화공사 등을 추진
- 그러나 당창건 60돌을 전후한 경제건설 성과보도에서는 석탄공업부문의 새 탄광건설이나 생산능력 확장공사 추진실적 보도가 전무한 실정
- ※ '04년도에는 강서지구, 강동지구, 북창지구 등 주요 탄광지구에서 연중 총 100여개의 중소탄광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보도
- 특히 '05년 제11기 3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05년 과업」 보고를 통해 “올해는 함남지구와 북부지구 탄광들의 석탄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겠다”고 했으나 연도중 관련 실적보도는 미미

<생산관련 동향>

- '05년도 석탄공업부문 생산동향은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실적보도에서 “석탄공업부문은 전체적으로 상반기 계획을 완수하였다”고 보도 (7. 3 중방)
- 덕천·순천·북창·개천·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들은 상반기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했으며
 - 안주·구장·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들은 상반기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
- 당창건 60돌 경제성과 보도(10. 8 중방)에서는 중소탄광 부문에서 연간계획을 수행하였다고 언급

<평 가>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연도중 채굴 전망이 좋은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 연간 100만~150만톤의 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투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이는 재정사정의 악화에 따라 '04년부터 석탄공업에 대해서는 적은 투자를 통해 생산을 정상화한다는 정책방향의 변화에 기인

※ '03년의 경우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인민경제비 지출 증가율이 전년비 30%로 타산업부문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

○ 석탄생산 보도 동향에서는 상반기 중에는 일부 탄광이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당창건 60돌 경제실적 보도에서는 중소탄광에서 연간계획 조기완수를 주장

○ 전체적으로 '05년도 석탄공업부문의 생산실적은 연간계획 달성에는 미달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산된 것으로 평가

※ 전기석탄공업성은 '05년 석탄생산은 전년비 107% 증가하였다고 주장 (12. 10 중방)

(2) 전력공업부문

<세부정책목표>

○ '05년도 전력공업부문 정책방향은

- 화력발전부문에서는 이미 개건·보수가 완료된 기존 화력발전 설비를 '만가동·만부하' 시키면서 여타 발전설비들의 개건·보수에 주력하여 전력생산을 높이고
- 수력부문에서는 현재 건설중에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29만 kW의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며
- 송배전 부문에서는 불합리한 전력계통의 개조 및 새로운 계량·계측설비 도입사업을 추진하여 전력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를 설정

<주요 건설 동향>

- 현재 북한이 추진중인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영원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태천2·4호발전소, 어랑천발전소, 예성강발전소, 삼수발전소, 백두산청년발전소 등으로
 - 영원발전소는 10. 5 대동강 상류 언제 건설 완공
 - 원산청년발전소는 물길굴 공사를 끝낸 데 이어 언제 및 발전기실을 건설중
 - 백두산청년발전소는 1단계 언제건설을 완공하고 발전기실 굴착 및 설비조립을 준비중

- 어랑천발전소는 언제 기초 굴삭공사가 완료되고 콘크리트 치기 진행중
 - 삼수발전소는 언제쌓기와 발전실 공사를 추진중
 - 예성강 발전소 역시 언제와 물길굴 공사를 추진중임.
- '05년 완공 조업한 중소형 수력발전소는 총 30여개소
- 라선청년2호발전소(2.13), 흥봉청년발전소(4.18), 봉련광산 2호 발전소(6.23), 위원임산2호발전소(9.27), 수성천 2단계 1~5호 발전소(9.30), 신계군민발전소 (9.30), 구룡강1호 청년발전소 (10.3), 동문2호발전소(10.5), 남천군민발전소(10.21), 승호철도청년발전소(10.21), 성강4호발전소(10.23), 내평2호발전소 (10.31), 덕지강7호발전소(11.11), 대각청년발전소(12.29) 등
 - 함경남도 덕성군은 '05년 초 24개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 착공, 5개월만에 12개를 완공 (10. 15 ~ 17 중방)
 - 자강도는 2만kW 증산을 목표로 14개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착공하여 4개 발전소(동문2호, 임산2호, 남천군민, 송원1호) 완공
- 연도중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설비 보수공사를 추진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발전설비 교체와 보일러 능력 제고를 위한 정비보강 및 영구 재처리장 건설 (7.12)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3호, 6호 보일러와 4호, 5호 터빈 발전기 대보수를 마감단계에서 추진 (10.21)
- 동평양화력발전소의 1호, 2호 터빈발전기 및 보일러 보수 공사 진행 (7.19)
- 청천강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보수·정비공사 진행 (9.11)
- o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동평양화력 발전소의 수십기의 보일러와 10여기의 터빈을 완전 보수
 - 터빈보일러의 기술관리 및 새형의 기류식 분쇄기를 도입, 중유를 적게 쓰면서 발전기의 대당 출력을 향상

<생산관련 동향>

- o 전력공업부문의 생산동향에 관한 보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화력발전부문은 생산실적 보도가 거의 없는 상황
 -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 보도에서도 위원발전소, 3월17일 발전소, 홍주청년1호발전소, 용연군민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등이 상반기 계획 완수한 것으로 보도
 - 대규모 수력발전소들 가운데 '04년까지 개건보수가 끝난 강계청년발전소, 장자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등은 '05년 8월중 전력생량이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보도

<평 가>

- '05년도 발전소 건설은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은 아직도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발전설비 용량변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은 3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가 완공, 발전능력이 수만kW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
 - 한편 화력발전부문은 '05년에도 북한 최대의 북창 화력 발전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주요 설비를 보수 및 교체
- 송배전 및 소비부문에서는 「전선 생산공장」, 「신형 카드식 계량기 공장」 등을 설립, 송·배전선과 계량기를 교체하여 전력 손실률을 줄이는 등 전기절약에 주력
- '05년도 전력생산은 수력발전부문에서 예년에 없이 비가 많이 내려 수량이 풍부하였고, 주요 발전소에서 개건·보수 등이 이루어져 전년보다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여전히 유류부족 및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가동률 저하로 근본적인 전력난 해소에는 미흡

(3) 광업 및 금속공업부문

<세부정책목표>

○ '05년도 채취공업부문은

-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단천제련소의 개건·현대화를 추진, 전기아연 생산을 1.4배로 늘리고
- 용양광산 대흥청년광산 등 주요 마그네사이트 광산들의 생산 정상화 및 국내탄에 의한 마그네샤크링카 생산량을 4.2배로 증가시키며, 경소마그네샤 및 전기용융 마그네샤크링카 생산량을 적극 늘리기로 목표를 설정

○ 한편 11월8일광산, 혜산청년광산, 상농광산 등 주요 광산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 귀금속·희유금속·비금속광산의 개발 확대를 목표로 설정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 철광산에 힘을 집중하여 철광석 생산을 1.4배로 증대하고, 특히 국내연료에 의한 철생산을 늘리며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개건·현대화를 추진하고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초고전력전기로건설을 마무리 짓고 조업시기를 앞당긴다는 목표를 설정

<주요 건설 동향>

- '05년도 광업부문 건설동향은 오랫동안 생산활동이 저조했던 노후 철광산들에 대한 개건·현대화 공사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 특징
 - 은률광산, 재령광산 개건·현대화에 주력 (3. 1 노동)
- '05년 건설 및 개건확장을 추진한 주요광산은 은률광산과 재령광산을 포함하여 총 10여개 정도
 - 12월5일청년광산 생산능력 확장공사는 마감단계에 있으며 사갱, 채광장, 파쇄장 등의 건설 및 확장으로 생산능력을 종전의 2.4배 확장을 목표로 추진 (9. 2 노동)
 - 11월8일광산 원동갱 등 주요갱의 운반계통 보수정비를 추진중이며 2월 현재 갱속에 쌓인 수천m³의 감탕을 처리한 것으로 보도 (2.18 노동)
 - 장산광산, 흥산광산 등 개건·현대화 (3. 1 노동)
 - 봉림광산의 선광장과 2호발전소 개건 및 풍서광산 선광장 건설 조업 (6.26 노동)
 - 함경남도 광천광산 개건 확장공사 준공 (6.29 노동)
 - 회령5호광산 건설 조업 (9.30 노동)
 - 함경남도 2월 25일광산은 선광장, 변전소, 갱, 광석운반도로, 송전선 등을 건설 조업하여 유색금속 광물 증산이 가능 (10. 2 노동)

- 철강공업부문에서는 주요 제철공장들이 새로운 시설 보강 및 개건·보수공사를 추진
 -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4호해탄로의 개건 대보수공사를 완공 (10. 9 노동)
 - 황해제철연합기업소는 강철직장의 초고전력 전기로(100톤급) 건설을 완료·조업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 (10.27 노동)
 - 평안북도 9월제철종합기업소의 삼화철 생산기지건설을 완료 하고 조업, 생산능력을 1.5배로 증가 (10.16 노동)
- ※ 삼화철 생산공정은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이용하여 선철을 생산
- 유색금속공업부문은 문평제련소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 개건을 추진 (3.25 노동)
 - 제련직장의 용광로에 연속장입, 연속배출 방법을 도입하고, 공기 송수관의 원리를 이용하는 무연탄 수송공정을 완성 하고 1월27일직장의 원판여과기를 보수 정비
- 단천제련소 배소1유산계통의 개건·현대화 공사 준공 (11.9 중방)
 - 2만여m²의 부지에 연건축면적 6천여m², 전기아연 생산능력의 획기적인 증대를 예상

<생산관련 동향>

- 채취공업(광업)부문의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은 채취공업관리국 산하의 시중광산, 12월5일광산, 광천광산, 연풍광산, 청도광산, 상서청년광산, 운전절연물광산, 영흥광산, 천동광산, 이천광산 등이 상반기 계획을 6% 초과 수행한 것으로 보도
 - 한편 금속공업성 흑색광업관리국 산하의 영원광산, 은율광산, 평산광산, 태탄광산과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10월5일청년광산, 상도광산, 용운광산 등도 상반기 계획을 완수
- 채취공업성은 채취공업생산액이 전년 대비 1.23배 증가하였으며, 130여개의 광산·기업소 등에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고 발표 (12. 15 평방)
- 한편 '05년에도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파철수집운동을 전개, 전체 시·군의 1/3에 해당하는 70여개 시군이 상반기 파철수집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것으로 보도 (5.12 중방)

<평 가>

- 최근 북한은 중국의 호황으로 인한 수요증대를 겨냥하여 채취·금속공업부문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주요제품 생산목표를 전년비 1.4배나 높게 계획
 - 철광석 및 전기아연 생산목표를 각각 전년도에 1.4배로 책정

- 이를 위해 주요광산과 공장들의 개건·확장공사를 집중적으로 추진
 - '04년부터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무산철광산을 개발하는 등 10여개 주요광산의 개건·현대화를 추진
 - 김책제철 4호해탄로 개건·대보수, 황해제철 100톤 전기로 건설, 9월제철 삼화철생산기지 건설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및 단천제련소 개건·현대화 추진 등
- 연도중 광업부문의 생산실적은 채취공업관리국 산하 주요 광산들이 상반기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광산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검덕광업연합기업소는 1/4분기에만 계획을 완수하고 상반기계획은 미달
- 전반적으로 볼 때 채취·금속공업부문은 과다한 목표설정으로 생산계획목표에는 미달했으나 '04년에 이어 '05년에도 생산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수출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4) 기계 및 조선공업부문

<세부정책목표>

o 기계공업부문에서는

- 구성공작기계공장,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등 주요 기계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 공장기계 생산은 1.5배, 발전기생산은 4배로 늘리며, 기계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수평팔탑식 기증기 등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적극 개발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의 주물공정을 현대화하여 이를 본보기로 모든 기계공장들의 단조공정과 같은 소재생산 공정의 개건을 목표로 설정

<건설 동향>

- o 기계공업부문은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에 따라 새로운 건설보다는 주요 기계공장의 생산공정을 개건·현대화하는데 주력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준공 (12.31, 중방)
- 용성기계 연합소 개건·현대화, 신형 압축기직장 현대화를 완료하고 압축기 전문 생산직장 건설 (12.26 평방)

- 희천공작기계공장 생산공정 현대화 추진, 함유연생산체계와 새로운 선반조종체계 등을 생산공정에 도입 추진중 (10.5 노동)
-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기술개선 공사 추진중 (3.12 노동)
- 평양자전거 합영공장 건설 조업 (10. 7 노동)
- ※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중국 톈진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
간에 합영으로 설립
- 평양 방직기계공장 편직사 직장의 현대적 직기 생산기지
조성으로 연간 1,000여톤의 편직사 생산능력 보장 (11.20 노동)
- 조선공업부문에서는 영남배수리공장 2호도크를 새로 건설
 - 그 외 6호부두 구조물 공사, 산소발생직장, 발전소건물, 종합
지령실, 편의 봉사장 등도 완공 (12.14 중방)
- 전기·전자·통신기계부문은 연도중 수 건의 건설 및 설비현대
화 공사 추진
 - 평양전기기구 합영회사 건설 조업 (10. 6 중방)
 - ※ 북한의 카드적산전력계 조립공장과 중국 베이징 북성효정전자 과학
기술주식회사간에 합영으로 설립
 - 3월4일공장, 평양통신기계공장, 성천강전기공장, 6월5일전기
공장 등의 설비 현대화를 추진
 - 3월26일공장 전선분공장 건설 조업 (10. 8 중방)

<생산관련 동향>

- 대형설비들을 생산하는 일반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낙원산소분리기공장, 평양승강기공장 등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는 각지 수력발전소 건설장에 발전설비와 각 화력발전소에 개·보수용 설비들을 원만히 제공하고 있으며, 어랑천 발전설비와 북창화력 대보수용 750형 감속기 생산에 주력 (12.21 평방)
 - 낙원산소분리기공장은 「2m³ 흡착식 산소분리기」 생산혁신으로 기존제품보다 산소발생률 향상을 이룩 (4. 8 노동)
 - 평양승강기공장은 새로운 「수평팔탑식 기중기」를 제작 (10. 6 노동)
 - 성천강전기공장은 16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수천kW급 중소형 발전기를 생산 및 성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장에 보낼 발전기 생산 공급 (11.11 평방)
- 공작기계공업부문에서는 희천공작기계공장이 10여종의 현대적인 각종 공작기계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10.5 노동)
- '05년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보도에서는 20여개 각종 기계·전기·전자·자동화기구공장들이 상반기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
- 그러나 당창건 60돌 경제성과 보도에서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 8월 28일공장, 9월 10일배수리공장등 극히 일부 공장만이 인민경제계획 연간목표를 조기 완수한 것으로 언급 (10. 8 중방)

<평 가>

- 기계공업부문은 낙원기계, 용성기계, 희천공작기계, 나남탄광기계 등 대형공장들의 개건·현대화에 노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임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의 주물생산공정 현대화와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압축기직장과 열처리직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완료
- 그러나 생산목표로 제시한 공작기계 생산 전년비 1.5배, 발전기 생산 4배 등의 계획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기기계, 축전지, 자동화기구 등의 생산은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실적 보도로 볼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
- 특히, '04년도에 객·화차 생산에서 비교적 좋은 실적을 올렸던 수송기계 생산부문의 연도중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
 - 조선공업부문은 영남배수리공장 2호도크 완공과 김책수산사업소에서 25톤급 선박 3척이 건조

(5) 화학공업부문

<세부정책목표>

○ 화학공업부문에서는

- 기존 생산토대의 효과적 이용으로 질소비료 생산량을 전년비 1.2배로 증대하고
- 새로운 석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공정을 도입, 수년내에 화학비료 수요를 자체생산으로 보장하며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탄산소다 생산능력 확장공사 조기완료
- 소금생산의 공업화 실현 등을 목표로 설정

<주요 건설 동향>

○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북한의 핵심적인 화학공장들이 각각 생산 능력 확장 및 생산 공정 현대화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

- 남흥청년화학공장은 탄산소다 생산공정 준공 (10. 6 노동)
- 2.8비닐론연합기업소는 가성소다 생산공정 건설 조업 (9.29 중방)
- 홍남비료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추진 (10.21 노동)

○ 온천청년제염소(7.19 중방), 8월1일청년제염소 준공(3.28 중방)

<생산관련 동향>

- 노동당 창건 60돌 경제건설 실적보도에서는 유일하게 해주 화학공장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조기 완수한 것으로 언급

<평 가>

-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요화학공장의 생산능력 확장 및 현대화에 주력하여 기초화학제품인 탄산소다와 가성소다 생산능력이 다소 확대되고 화학비료 증산을 위한 홍남질소비료공장의 개건·현대화 공사에 착수한 것이 특징
-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년도의 화학공업부문 정책방향을 보면 여전히 주체성을 강조, 석유화학공업보다는 석탄화학공업에 의존하는 낙후한 생산공정과 기술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는 자본부족과 석유도입에 필요한 외화의 부족에 따라 기존의 석탄화학체계를 석유화학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 현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주요 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05년에도 농약, 비닐박막 및 합성섬유 등 화학공업부문의 생산동향은 여전히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연도중 북한은 각종 화학공업제품과 기초생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및 대외의존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6) 건재·건설공업부문

<세부정책목표>

○ 건재공업부문에서는

- 대안친선유리공장건설을 완공하고 세멘트공장들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을 전년비 1.2배 증대시키며 마감건재의 국산화 실현 등을 세부정책 목표로 설정

○ 건설부문에서는

- 습식공법을 경량구조에 의한 건식공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

<주요 건설 동향>

○ 주요 세멘트공장의 기술 개건·현대화 추진

- 천내리세멘트공장 3호소성로 기술개건을 추진
- 8월2일세멘트공장은 초무연탄 등 지방의 원료원천을 동원,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기술적 보완을 추진
- 2.8세멘트공장은 4호소성로에 초무연탄에 의한 크링카 생산 방법을 도입, 기술 개건·현대화 추진
- 고무산 세멘트공장은 소성로의 종합조종시스템화를 추진

○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 (10. 9)

- 우방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시('03. 10) 2,400 만달러 상당의 공장건설지원 약속으로 '04년 7월 착공하여, '05년 8월 용해로 화입식을 거쳐 10월에 준공
- 연간 유리생산 능력은 640여만톤으로 생산량의 60%는 러시아로 수출할 계획 (10.10 러시아소리 방송)

<생산관련 동향>

- '05년도 생산동향은 소성로 개건 현대화와 기본규정과 표준 조작법 준수 등을 통해 생산에 주력
- 강계세멘트공장은 8월 '05년도 생산계획을 8% 초과 달성 함으로써 연간 계획을 조기 완수 (8. 21 노동)
- 고성세멘트공장, 송원세멘트공장, 천내리세멘트공장, 2.8세멘트 공장 등은 소성로 기술개건으로 매일 생산계획의 10~50% 초과 달성

<평 가>

- '05년도 북한은 대규모의 유리공장건설과 주요 세멘트공장의 기술개건·현대화 및 내화물공장 설비개조에 주력하였음
- 그 결과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완공, 연간 640만톤의 각종 유리생산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정상 가동될 경우 자체 수요는 물론 일부 수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

- 세멘트공업부문은 일부 세멘트공장의 소성로의 기술개건을 통해 석탄 대신 초무연탄을 이용한 생산방법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
- o '05년도 세멘트 생산은 전년비 20%증가를 목표로 하여, 소성로 개건 현대화 및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준수 등으로 생산에 주력하였으나 목표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인 기술개건 및 시설확장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설노후화와 영세성 및 석탄·유류 등 에너지의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7) 경공업부문

<세부정책목표>

- o 경공업성은 경공업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중심과업으로 추진하면서 천과 신발, 간장, 된장, 빨래비누, 칫솔, 치약 등 1차소비품의 생산계획을 엄수, 생산을 증대시키고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정책목표를 제시 (2. 11 노동)
- o 최고인민회의 「'05년 과업」 보고에서는 이미 건설된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본보기로하여 전반적인 경공업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촉진하고
 - 경공업 원료·자재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각종 질 좋은 인민 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
- o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경공업공장 현대화 사업은 한꺼번에 다 벌려놓지 말고 점차적으로 실정에 맞게 추진하라”고 지시 (5.12 노동)

<주요 건설 동향>

- 경공업공장의 개건·현대화는 주로 직물공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새로운 공장건설은 기초식품공장에 집중
 - 직물공업부문은 8개 공장이 개건·현대화를 추진
 - ※ 평양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선교편직공장, 박천견직공장, 희천제사공장, 평양제사공장 등
 - 기초식품공업부문에서는 30여개공장이 개건·현대화되어 간장, 된장 등 기초식품의 생산여건이 개선되었으며(12. 27 중방), 신계고구마가공공장, 삼지연장공장, 부전감자전분공장, 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 신의주두유공장 등이 건설·조업함
 - 그 밖에 8월1일청년제염소, 평남 온천제염소, 함남 단천제염소, 남양정제소금공장 등이 완공되고 희천경질유리그릇공장이 건설 조업하였음

<생산관련 동향>

- '05년도 생산실적은 평양시 경공업부문 18개공장, 자강도 지방산업 6개공장, 강원도 지방산업 4개공장 등 총 27개 공장이 상반기 계획을 완수
- 당 창건 60돌 경제성과 발표 내용 중 경공업분야에서는 9월 방직공장, 평양일용품공장, 평양제사공장 등 수십개의 중앙경공업 공장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

<평 가>

- 북한은 '조국해방 60돌', '노동당 창건 60돌'이라는 대내 정치적 상징성을 중시, 식량문제·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1차 소비제품 증산에 전력을 경주한 것으로 분석됨
 - 각종 경공업 공장의 개건·현대화 및 경공업 원료·자재보장을 통한 가동률 제고 노력을 전개
- 따라서 '05년에는 70여개 이상의 공장·기업소를 개건·현대화 또는 새로 건설·조업하는 성과를 달성
 - 섬유공업부문 13개, 신발공업부문 4개, 기초식품공업부문 30여개, 기타 20여개 공장의 개건·현대화사업 추진
- 그러나 경공업부문의 상반기중 생산동향은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업소 수가 전년도와 비슷한 27개 수준
 - 특히 당창건 60돌 경제성과 발표에 포함된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는 9월방직공장, 평양일용품공장, 평양제사공장 등에 불과
- 경공업부문 생산부진의 근본적인 요인은 원료·자재의 공급 부족으로 판단되며, 이같은 배경 속에서 북한은 제10차 경추위를 통해 남한에 대규모의 소비재 생산용 원자재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수송운수 및 정보통신산업

(1) 세부정책목표

- '05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은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혁명적 사업체계를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 들며, 화물을 제때에 싣고 부리도록 강한 규율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최고인민회의 과업보고에서 기관차와 화차의 수리 및 생산에 주력하고, 철도화물 수송량을 전년비 120%로 높이며 육·해운 부문에서는 해상수송과 자동차수송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정책목표를 설정
- 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 건설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

(2) 주요 동향

<수송 · 운수산업>

- 철도운수 부문에서는 서부지구를 비롯한 중요구간의 철길 현대화에 필요한 자재부품 증산을 위해 관련 공장·기업소의 생산공정 현대화에 주력 (3. 9 평방)
 - 나홍콘크리트침목공장, 승호리콘크리트침목공장 등의 생산공정 현대화 및 콘크리트 침목을 증산

- 6월4일철도차량공장, 평양차량공장 등은 철도 현대화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부속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04년에는 신성천(평남) - 고원(함남)구간의 침목교체공사 1단계 사업을 완료

- 또한 봄철 철도애호기간(4~5월)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관·민이 철도보수 및 물자지원사업을 전개 (4. 8 민주조선)
 - 철도부문 근로자들은 철도보수에 역량을 집중, 열차의 무사고 정시운행 보장에 주력
 - 내각의 성 및 각 시·도 인민위원회는 철도운수사업에 필요한 자재·물자 지원운동을 적극 전개
- 노동당 창건 60돌을 앞두고 신의주청년역-포항역간에 통근·통학열차의 운행을 개시 (10. 6 노동)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신의주화장품공장 등의 노동자와 학생, 주민들이 통근·통학에 이 열차를 이용
- 육·해운 부문에서는 일부 항만에 짐함(컨테이너)부두의 건설 추진과 정기컨테이너선 운항을 개시하는 등 해상운수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01년부터 추진중인 남포항 2호 도크 및 컨테이너부두(5만톤) 건설공사 완공 (12.14, 중방)
 - 북중 교역 증가추세에 따른 남포 - 단동간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개시 (8. 3)

- 송림-대안간 150톤급 자동차 수송선 운항 개시 (10.22 중방)
- 한편 북한 민간선박 제주해협 통과운항이 남북해운분야 합의로 8월 15일부터 개시

※ 동서해안 항구간 수송거리는 약 53해리 단축, 항해시간은 4시간25분 (12노트 기준) 단축

- 항공운수부문은 백두산지역 삼지연 비행장의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도 (10. 18 조선신보)
- 수송부문의 '05년 상반기 인민경제 수행실적은 철도수송을 제외한 여타 수송부문에서 상반기계획을 초과수행한 것으로 보도 (7. 3 중방)
- 무역화물수송량 119.2%, 국내화물수송량 122.2%, 무역화물 통과량 116.9%, 자동차화물수송량 113.7% 증가 등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부문에서는 체신시설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광통신망의 확대와 산업생산 및 경영에 이용할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기술인재 양성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평양통신기계공장은 체신현대화에 필수적인 수자식(디지털) 자동교환기 양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도 (3.15 중방)
- 제16차 전국 컴퓨터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는 각 지역의 정보과학기술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학생들이 '04년보다 39% 증가한 750건의 프로그램을 출품 (9.14 중앙TV)

- 노동당 창건 60돌 직후 체신부문의 현대화 성과를 보도, 최근 통신능력 확장 및 현대화사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 (10. 17 노동)
 -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농촌리에 광섬유통신화가 실현되고, 국제통신위성과 우편통신 및 방송부문의 현대화에도 진전을 이룩
 - 전자산업부문 공장기업소들의 기술개건으로 체신현대화 실현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마련
 - 체신부문에서는 광섬유통신의 대용량화 및 고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리 단위에 대한 광섬유화 사업과 통신·방송설비 생산공장의 개건·현대화를 적극 추진중
- 한편 조선중앙정보통신국은 지난 10년간에 전송능력을 30배 증가시키고 통신국간의 연락망을 구성함으로써 원활한 전화 통신을 위한 2중화를 실현한 것으로 보도 (10. 17 조선신보)

(3) 평가

- 북한의 수송운수체계는 철도수송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으나 철도시설의 노후화, 자동차운수 및 해운의 낙후 등 전반적인 수송애로문제는 에너지부족과 함께 북한 경제발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 '04년까지 동부지역의 철길 현대화에 주력, '05년부터는 서부 지구를 비롯한 중요구간의 철길 현대화와 함께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해상운수시설에 대한 현대화 노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o '05년도 화물수송실적은 상반기 중에는 무역화물이나 국내 화물수송량이 모두 상반기계획을 초과 수행하였으며
 - 당창건 60돌 경제성과 보도에서도 철도운수부문에서 연간 계획을 조기 완수한 것으로 보도한 점으로 볼 때 수송운수 부문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o 통신부문에서는 광섬유통신시설의 대용량화 및 농촌 리단위까지의 광섬유 통신화, 시·군지역 전화의 전자식 교환기로의 교체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o IT산업부문에서는 김책공업전문대학에 전자도서관 건설을 비롯하여 e-북 출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 공장·기업소 시설자동화 및 경영관리의 전산화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도시경영 및 주택건설

(1) 세부정책목표

- o 도시경영부문은 '04년에 이어 '05년에도 평양시 중심거리 개건·현대화에 목표를 두고 주요건물 개보수 및 상하수도 보강을 추진

- 주택건설부문은 북한 전체 도시와 농촌마을에 4만 6천세대의 현대적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기존 노후주택들의 개건·보수를 정책목표로 설정

(2) 주요 동향

-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광복 60돌, 당창건 60돌 등 주요행사를 위한 평양시 주요거리와 건물의 개건·보수에 노력을 집중
 - 인민문화궁전, 금수산기념궁전, 4·25문화회관, 동평양대극장 등 대규모 건축물 보수정비
 - 예술인여관, 창광산여관 등 대형 숙박시설의 개건·보수 및 만경대 천석식당 확장
 - 평양음악대학, 김책공업대학 전자도서관·체육관, 통일거리 탁아소·유치원·진료소, 적십자 병원 심장병동, 구강종합병원 등 건설
 - 평양시 남강다리 건설 및 가로등 교체, 수도관교체 등 상하수도 공사추진, 「국가사회재산 애호월간」(7~8월)중 북한 전역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집중수리·보수 추진
 - 당창건 60돌 경제성과 발표에 의하면 평양시는 100여동의 공공건물, 220여동(18,000여세대) 살림집 개건 보수, 대동강·보통강 유원지 현대화 등을 실적으로 선전

- 반면 지방도시의 개건·현대화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
 - 개성시에서는 문화유적들에 대한 관리·보수사업에 주력 (9.30 중방)
 - 사리원시는 일부 지역의 배수로 공사(12km 구간)를 완공 (3.17 평방)
- '05년도 주택건설 목표는 총 4만 6천세대 였으나 당창건 60돌 경제성과 발표에서 5만여세대를 건설한 것으로 선전
 - 농촌주택 3만여세대, 평양 만경대구역 용악산 630여세대, 나선시 1,000여세대, 박연지구 100여세대, 강서군 청산리 70여세대 등
- ※ 5만여세대 건설 주장속에는 평양시 주택 보수실적 18,000여세대를 포함한 것으로 보여 신규건설 실적이라기 보다는 전국의 주택보수와 건설실적을 모두 종합한 것으로 보임

(3) 평 가

- 당창건 60돌임을 감안, '04년부터 추진해 온 평양 중심 거리의 개건·보수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주력했으며 주택건설 역시 전반적으로 신규 건설보다는 낡은 주택의 개건·보수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

4. 대외 무역 및 경제협력 동향

가. 대외 무역

- '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북핵문제 등으로 대외환경 악화가 지속된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교역증가 등에 힘입어 30억달러('04년 실적 28.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북한의 무역구조 및 월별 추세변동 분석 결과)
- 對中교역은 15~17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 對日교역은 2억달러 내외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
- 對中國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연료·수산물·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등 에너지·곡물·육류 등임
- 對日本 주요 수출품목은 수산물·광물성연료·전기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차량·전기기기·기계류·인조필라멘트섬유 등임.

나. 대외경제 협력 동향

(1) 중·러 및 亞·阿지역을 중심으로 경협확대 모색

- '05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활동은 중국·러시아·몽골 등 舊 사회주의권 국가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 활동을 전개

- 중국과는 박봉주 총리 및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고위급 인사 및 경제대표단 교류를 통해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등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주력
 - 박봉주 내각총리 訪中(3.22 ~27)을 통해 북·중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상하이 포동(浦東)지구 등 주요 공장 시찰 및 투자·교역확대 문제 등을 논의
 - ※ 베이징시 연경맥주공장, 노키아공장, 심양제1공작기계공장, 요하 유리유한공사, 요녕성 농업과학원 종자처리공장 및 온실 등 시찰
 - 북 「경제대표단」(단장 이용남 무역성 부상)이 「북·중 경제 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차 訪中(3.15~19),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
 - 또한, 북 「품질감독국 대표단」(단장 박성국 부국장)이 訪中, 북·중 「05~06년 규격화·계량·품질감독부문 협조계획서」 및 「05~06년 품질인증분야 협조계획서」를 체결(4.25)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訪北(10.28 ~30)시, 양국간 경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하고, 「북·중 경제기술 협조협정」을 체결(10.28)
 - 노두철 부총리의 訪中(12.24-27)을 통해서도 북·중 「해상에서의 원유공동개발 협정」을 체결(12.24)
 - 한편, 「평양 보통강수입물자 교류시장」(6월), 「평양전기기구회사」(10월), 「평양자전거합영공장」(10월) 등 북·중 합영 합작기업이 설립되고, 중국정부가 무상제공하는 「대안친선 유리공장」이 준공(10.9)

- 러시아와는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전권대표 「폴리코프스키」의 두 차례 방북(8월, 10월)을 통해 쌍방 경제협력 확대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북한 「무역성」 및 「체신대표단」등도 러시아를 방문, 관련 분야 협력확대 방안을 협의
 - 북·러 「05-06년 규격·계량·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를 체결(4.11)한데 이어, 북 「체신대표단」(단장 박명철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4월), 이동통신·체신 등 방송통신 부문 협력 강화를 도모
 -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구 전권대표 방북(8.14~17)을 통해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 4개항에 합의
 - ※ 합의사항 : △양국간 교역 및 경제협력 강화, △임업분야 북한 노동력 유치, △ 러시아산 원유의 대북 무관세 수출, △TKR-TSR 연결사업 개시를 위한 재원마련 노력
 - 북 「무역성 대표단」의 사할린 방문을 통해서는 북·사할린간 「경제무역실무위원회 구성 합의서」를 체결 (10.5)
 - 북·러 「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 「임업분야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 (10.26) 하는 등 러 극동지역과의 무역·에너지·임업 등 경제 각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
- 몽골과는 북한 경제대표단(단장 이명산 무역성 부상)이 「북·몽골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의위원회」참석차 몽골을 방문 (1.27-2.8)하고, 몽골 「정부경제대표단」(단장 엔흐투부신 공업 무역성 차관)도 북한을 방문(9월),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문제 등을 논의

- 한편, 아시아·아프리카와의 교류협력에도 역점을 두고 각종 경제협정을 체결하는 등 亞·阿 지역과의 경협확대를 모색
 - 북 「육해운성 대표단」(단장 김영일 육해운상)이 시리아를 방문, 양자간 「해상운수협정」을 체결(5.11)
 - 북 「경제무역대표단」(단장 임경만 무역상)은 예멘·케냐·우간다·기니 등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 각종 경제협정 등을 체결
 - ※ 북·예멘 「무역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 및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6.26 중방), 북·우간다 「무역 및 경제협조발전에 관한 양해문」 및 북·케냐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양해문」 체결(6.27, 중방)
 - 또한, 북 「경제대표단」(단장 임경만 무역상)은 남미 3개국(쿠바·브라질·베네수엘라)을 방문(10.31~11.22), 북·베네수엘라 「무역협조에 관한 협정」(11.8), 북·쿠바 「제24차 경제과학기술협의회 의정서」(11.4) 등을 체결
- 서방권과는 북 「체신대표단」(단장 박명철 부상)이 독일·프랑스를 방문(4.9~5.3), 방송통신 분야 선진기술 도입·협력확대를 모색하였고, 「외무성대표단」(단장 궁석웅 부상)은 유럽 6개국을 방문(10.25~11.22), 경협확대 등을 논의한 가운데
 - 북한 고려은행·영국 글로벌그룹 합작으로 「고려-글로벌 신용은행」이 평양에 설립(6.3)

(2) 「상품전람회·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05년도 북한은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해외 상품·선진기술정보 도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모색

- 제8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5.16~19)에 이어 제1차 「평양 추계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

-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제1회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9.2~6)에 「무역경제대표단」을 파견,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북한투자설명회」등을 개최하기도 하였음.

※ 이밖에 북한은 각종 국제 박람회에 참관단 등을 파견, 선진기술·정보 도입 등을 모색

○ 또한, 「투자상담회·경제세미나」 등을 통해 외자유치 및 선진 경제·무역실무 습득 등 경제협력을 위한 여건개선의 계기로 활용

- 중국 각지에서 「북한투자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한편

※ 1.15 흑룡강성, 2.25 북경, 3.5 사천성, 9.2 길림성 장춘 등

- 북 무역성·UNDP 공동주최의 「국제무역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5.4~5), 선진 무역정책·제도 등에 대한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대외시장 개척 및 무역증진 방안 등 논의

- 「무역은행 대표단」(단장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은 UNCTAD 외채관리기관총회(6.14~7.2), 「조선중앙은행 대표단」(김완수 총재)은 국제결제은행 제75차 연차총회에 참석 (6.21~7.2)

- 한편, 제2차 북·EU간 「경제개혁 워크숍」을 평양에서 개최 (10.11~14), 시장경제 제도·외자유치 전략 등 선진지식 습득과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 이행과정 등 경제 개혁 사례 등 학습에도 주력

※ 한편, 실무그룹회의에서는 국영기업 현대화 방안,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조직관리와 근로자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구체적인 문제를 토론

【05년 주요 북한 경제대표단 대외 방문】

일시	대표단명(단장)	국별	주요 방문목적
1.27 -2.8	경제대표단 (이명산 무역성 부상)	몽골	○ 북·몽골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의회위원회」 참가
3.15-19	경제무역대표단 (이용남 무역성 부상)	중국	○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의회위원회」 1차회의 참가
3.15 -4.5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양형섭 상임위 부위원장)	남아공, 나미비아, 잠비아 앙골라	○ 阿 비동맹 국가와의 친선 강화 ○ 경제협력 확대 논의 등
3.22-27	박봉주 내각총리 일행	중국	○ 북·중 「투자보호장려협정」 체결 ○ 대북 무상원조·투자교역확대 논의
3.26 -4.8	과학기술총연맹대표단 (최상건 부위원장)	중국	○ 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문제 협의
4.9- 5.3	체신대표단 (박명철 부상)	독일,프랑스, 러시아	○ 방송통신분야 선진기술 도입 및 협력확대 논의
4.7-28	국가품질감독국대표단 (박성국 부국장)	중국,러시아	○ 북·러, 북·중 「05-06년 규격계량 품질관리 협조계획서」 체결 ○ 북·중 「05-06년 품질인증협조계획서」 체결
4.14-20	농업과학원대표단 (유상봉 부원장)	캐나다	○ 노바스코시아 농대 방문 ○ 농업연구소, 농산물 저장시설 방문
5.7-17	육해운성대표단 (김영일 육해운상)	시리아	○ 북·시리아 '해상운수협정' 체결
5월	무역성대표단 (임태덕 부상)	프랑스	○ 佛 기업대상 북한투자상담회 참가
5.21-31	평안남도 대표단 (김종태 평남인민위원장)	중국	○ 평남도와 중국과의 경협 협의 등
5.25- 6.3	황해남도 대표단 (권춘학 황남인민위원장)	중국	○ 황남도와 중국과의 경협 협의 등
5~6월	외무성 대표단 (최수현 부상)	이란,이집트, 사리아,카타르	○ 제2차 개도국정상회의 참석 ○ 원유도입·건설인력진출 등 경협논의
6.4-15	전기석탄공업성대표단 (주동일 석탄공업상)	중국	○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문제 등 협의
6.6-7.1	경제무역대표단 (임경만 무역상)	우간다,케냐 가니말티,예멘	○ 북·예멘 「무역경제협조협정」 체결 ○ 북·우간다 「무역경제협조발전양해문」 체결 ○ 북·케냐 「경제기술협조양해문」 체결
6.14 -7.2	무역은행대표단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	스위스	○ UNCTAD 세계 외채관리기관 총회 참가 ○ 채관 채무국간 채무탕감문제 해결동향 파악
6.21- 7.2	중앙은행대표단 (김완수 중앙은행 총재)	스위스	○ BIS 제75차 연차총회 참가 ○ 중앙은행간 금융협력 협의

일시	대표단명(단장)	국별	주요 방문목적
6월	강원도 대표단 (김광웅 인민위부위원장)	중국	○ 강원도와 중국과의 경험 협의 등
6.18-24	금속공업성대표단 (김승현 금속공업상)	중국	○ 제16회 경제무역상담회(후룡강성) 참가 ○ 중국 전국공장, 강철공장 등 시찰
6.20-22	평양상공회의소대표단 (리송운 소장)	남아공화국	○ 제4차 세계상공회의소 총회 참가 ○ 무역·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협의
8.19-25	경제무역대표단 (임경만 무역상)	러시아	○ 러 극동지역과의 무역·경협 확대 협의
8.31 -9.6	경제무역대표단 (임경만 무역상)	중국	○ 제1회 동북아시아 투자박람회 참가 ○ 무역·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협의
9월	경제대표단 (조경화 해외동포위원회 부국장)	멕시코	○ 해외동포대상 대북투자설명회 개최
9월	과학원대표단(변영립 원장)	중국	○ 동북아 첨단기술박람회 참가
9월	경제무역대표단 (임태덕 부상)	중국	○ 제8차 TRADP 5개국회의 참가
9.24- 10.4	조선몽골친선대표단 (문일봉 재정상)	몽골	○ 북-몽골 경제협력 확대 협의 등
9.14-30	국가품질감독국대표단 (박성국 부국장)	싱가포르	○ 제28차 국제규격화기구총회 참석
9.25- 10.5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양형섭 부위원장)	쿠바, 베네수엘라	○ 구상무역 등 경험확대 협의
9.22- 10.6	무역성대표단 (김영재 부상)	러시아	○ 북·사할린 '경제무역실무위원회 구성' 합의서 체결
10.24 -30	철도성대표단 (김용삼 철도상)	중국	○ 철도분야 협력 논의 등
10.20 -11.3	임업성대표단 (이진선 부상)	러시아	○ 북·러 무역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 8차회의 참석
10.15 -25	최고인민회의대표단(강능수)	체코	○ 경험확대 논의 등
10.25 -11.9	외무성대표단 (궁석웅 부상)	유럽 6개 국	○ 경험확대 논의 등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10.31 -11.22	경제대표단 (임경만 무역상)	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	○ 북·쿠바 경제과학기술협약의정서 체결 ○ 북·베네수엘라 무역협조협정 체결
11.5-8	북중수력발전회사대표단 (신영성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중국	○ 북중 수력발전회사이사회 57차회의 참석
11.24 -12.1	소프트웨어총국대표단 (한우철 총국장)	러시아	○ IT분야 협력강화 논의 등
12.10 -16	김책공업대학 대표단 (홍서현 총장)	중국	○ 공업분야 학술교류협력 논의 등
12월	국가과학원 대표단	중국	○ 과학기술협조위 제41차회의 의정서 체결
12.24 -27	정부대표단 (노두철 부총리)	중국	○ 해상 원유개발협조 협정 체결 등

【05년 주요 외국 경제대표단 방북】

일시	대표단명(단장)	국별	주요 방북목적
1월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첸하오민 이사장)	중국	○ 노두철 부총리 면담 ○ 대외 투자유치 논의
1.20-21	가즈프롬사 대표단 (알렉세이 밀러 사장)	러시아	○ 북러 가스사업 협력증진방안 협의 등 ○ 박봉주 총리 면담
1월	아미넥스사 대표단 (브라이언 홀 사장)	영국	○ 북한 석유개발사업 추진관련 협의
3월	동북전력망유한공사 대표단 (유친동 사장)	중국	○ 「북·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6차회의 결정서 체결
4월	단둥시 대표단	중국	○ 교역확대 등 경제협력 확대 논의 및 친선강화
5.3-6	무역토론회참가 대표단	영국,독일,호주, 말린,싱가폴	○ 북·UNDP 주최 국제무역토론회 (5.4~5) 참가
5월	하천운항협조대표단 (단둥해운공사 정옥작)	중국	○ 북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 4차회의 참가
6.11 -14	정부대표단 (아산디안뉴 국토건설장관)	세네갈	○ 경험·외교분야 상호관심사 및 친선협조 증진방안 논의
6.14 -16	외무성 대표단 (라지브 시크리 비서)	인도	○ 외교정책협의회 참석, 경험논의 등
6월	글로벌그룹 대표단 (조니 혼 회장)	영국	○ '고려-글로벌' 합작은행 개업식 참가
6월	연변자치주 대표단	중국	○ 라선, 청진 등과 경제교류, 합작 강화 협의
7.13-16	길림성 경제무역대표단 (전학인 길림성 부성장)	중국	○ 북·중국 길림성과의 경험확대 협의
7.23-28	방직·피복공업대표단 (두옥주)	중국	○ 방직 등 경공업분야 협력 확대 협의
8월	연해주정부 대표단	러시아	○ 함북도·연해주간 경제협력의향서 체결
8.14-17	러시아대통령 전권대표 일행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 북·러 경험확대 4개항 합의
8월	'인터 라오 우에스'社대표단	러시아	○ 전력부문 협력사업 논의
8.20-23	경제무역대표단 (진건 상무부장 조리)	중국	○ '대안친선유리공장' 점화식 참석 등
8.23-27	정부대표단 (루판도 므와페 부통령)	잠비아	○ 경제, 농업기술 교류확대 등 협의 ○ 개찬태성호 물길 동대원 피복공장 참관
8.27-30	외무성 대표단 (칸타티 외무장관)	태국	○ 이통사업 등 경험문제 협의

일시	대표단명(단장)	국별	주요 방북목적
9.7-9	요녕성 대표단 (리극강)	중국	○ 북·요녕성간 경협확대 논의 등
9월	국가전력망공사 대표단	중국	○ 북·중 수발전회사 창립기념일 참석
9월	정부경제대표단 (엔흐투부신 공업무역성 차관)	몽골	○ 북·몽골간 경협확대 논의 등
9.24-27	외무성 대표단 (과하드 차관)	남아공화국	○ 구상무역 등 경협확대 논의
9.27 -10.1	외무성 대표단 (웬 푸빙 차관)	베트남	○ 교역 및 경협확대 논의 등
10월	식료·농업성대표단	몽골	○ 농업분야 협력사업 협의 등
10월	과학원 극동연구소대표단	러시아	○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 논의
10.8-11	우이 부총리 일행	중국	○ ‘대안유리공장’ 조업식 참석 등
10.8-11	러시아대통령 전권대표 일행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논의 등
10.18 -22	정부대표단 (알 루파이 수도영토장관)	나이지리아	○ 경협확대 문제 협의 등
10월	아미넥사사 대표단 (브리이언 홀 사장)	영국	○ 북한 석유개발 추진 관련 협의
10.28 -30	후진타오 국가주석	중국	○ 북·중 ‘경제기술협조협정’ 체결 ○ 양국관계 발전 4개항 합의 등
11월	노바티스제약회사대표단	스위스	○ 투자 등 상호협력문제 논의 등
11.5-8	외무성 대표단 (알렉세예브 차관)	러시아	○ 교역투자 및 북한의 대러 부채 문제 등 경협 논의
11.8 -12	재일조선상공인대표단 (이봉규 연합회 회장)	일본	○ 박봉주 총리 면담 등
11.26 -12.3	철도회사 대표단 (사조노프 부사장)	러시아	○ TKR-TSR 철도연결 사업 논의 등
12.5-6	쌍트 페테르부르크시 대표단(마트비엔코 시장)	러시아	○ 무역경제협조 회담록 등 체결
12.10 -13	외무성 대표단 (루스 야꼬비 개발협조국장)	스웨덴	○ 경제지원·협력 논의 등
12.13 -15	WFP 대표단 (제임스 모리스 집행국장)	국제기구	○ 대북 식량지원 협의 등

5. 경제관리 개선 및 주민생활

가. 세부정책 목표

- 경제관리 개선 부문에서는 “올해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제와 방법의 연구완성”에 정책목표를 두고
 -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보장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과학적 경영 및 기업전략을 수립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조직해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설정
- 주민들의 기초생활 향상과 관련해서는 식량, 주택, 땀감, 전기, 조명, 샘물공급 등의 문제를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촉구,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지방기관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을 시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년도 예산안에서는 “도·시·군들이 지방예산제 방식을 철저히 관철하여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되 번수입에서 중앙예산에 바치는 납입금을 먼저 낸 후 나머지를 자체 살림살이에 쓰도록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울 것”을 강조, 예산수입 증대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

나. 경제관리 개선 추진 동향

- ‘05년 상반기까지의 북한 신문·방송 보도에서는 대체적으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심화 발전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
 - 평양의 군밤·군고구마 매대수가 280여개로 증가 (1.7 평방)

- 평북 염주군 학소협동농장은 분조 규모를 실정에 맞게 정하고 분조장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 (1. 23 노동)
- 평양일용품공장은 매달 일정한 국가납부금을 바친 뒤 남은 돈을 지배인 판단하에 쓸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 결과 국가납부금이외의 자금으로 공장 현대화와 노임 인상에 활용, 평균노임을 1만 1천원까지 높였으며, 이 경험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예정 (1. 2 조선신보)
- 3.25자 노동신문 사설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 관리체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 기관·기업소들의 임무와 권한,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 규정해 주어야 책임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

라. 평 가

< 경제관리 개선 >

- o 연도중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북한은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공공배급제도의 부활 시도 및 종합시장에서의 곡물판매 금지, 대북지원 국제기구 활동제한 및 철수요구 등
 - 이같은 움직임은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의 물가폭등, 주민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 및 사회적 불만누적 등 경제관리 개선의 복합적인 부작용에 따른 정책적인 숨고르기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주민생활 >

○ '05년도 북한 식량사정은 자체생산, 남한의 식량차관,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500만톤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수급사정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판단됨

- '04년 생산 431만톤, 남한식량차관 50만톤, 국제기구지원 17만톤(11월 현재 도착기준),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3,403만 달러 (전년동기비 481.1%증가)

6. 종합평가 및 전망

가. 경제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 북한은 '05년이 “조국광복 60돌, 노동당 창건 60돌”이라는 점에 매우 큰 정치적 의의를 부여하고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총진군할 것을 투쟁의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국방공업” 강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산업별로는 농업과 경공업에 집중, 식량문제·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과 1차소비재 증산 및 세계적 수준으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추구
- '05년도의 거시경제 성장목표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철도 화물 수송량(전년비 20% 증가), 예산 증가율(전년비 11.4%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물량 계획지표는 전년도보다 최소한 10%이상 높게 설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04년 북한경제는 2.2%의 성장을 기록 '99년 이래 6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05년도에도 경제정책 추진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성장 저해요인들이 산적해 있어서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음
 - 재정사정 악화, 높은 물가 상승, 핵문제·인권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 경제정책 여건을 악화
- 따라서 북한은 대외관계 면에서 국제경제 협조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재정 · 예산

- 북한은 「7. 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처음으로 예산규모를 발표함으로써 임금·가격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예산체계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산회계 질서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북한은 '04년도에는 재정관리 개선조치를 단행, 과거 지출 위주로부터 수입 위주의 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가격구조개편을 반영한 농업부문 경영계산을 과학화
- '05년도 예산을 총 3,885억원으로 편성, 예산 규모가 '02년 예산액의 17.5배로 증가하였으나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02년 예산의 70%이하로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산규모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요인은 첫째, 재정에 의한 농산물 수매가와 판매가의 차액보상제 폐지와 같은 재정기능의 축소, 둘째, 경제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총량 규모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추정
- 따라서 '04년도의 예산적자(112.6억원) 기록 및 '05년도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는 여전히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자력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농림수산업

- '05년도 북한의 농업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인력과 자재 등 지원이 곡물생산에 집중되었으며, 농업부문의 기본 건설사업에서도 다소 성과가 있던 것으로 평가됨.
 - 특히 '04년부터 추진해 왔던 백마 - 철산 관개공사의 완공, 평안남북도의 곡창지대에 자연흐름식 관개체계가 완성되고, 금성간석지 내부망공사를 완공하는 등 농산물을 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05년도 곡물생산량은 연중 기상조건의 순조와 영농자재·인력의 총집중, 총동원에 힘입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북한농업은 대자연개조사업에 의한 경지정리, 관개 건설, 간척지건설 등의 장기적인 농업기반 강화에도 불구하고
 - 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기계부품 등의 공급부족으로 영농 기계화, 화학화 수준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라. 광공업

<에너지공업>

- 석탄공업부문의 '05년도 건설목표는 채굴전망이 좋은 탄광에 투자를 집중하여 연간 100만~150만톤의 새로운 석탄생산 능력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 투자 부족으로 새로운 탄광건설 및 확장공사 실적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됨
- 전력공업부문의 건설목표는 건설중인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조기 완공을 촉진하면서 중소규모 발전소 건설을 통해 총 29만여kW의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고, 주요 발전소들의 개건·보수를 통해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이었으나
 - 연도중 30여개의 중소규모수력발전소 완공을 통해 수만kW의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는데 불과
 - 전력생산에 있어서는 화력발전용 석탄의 집중 투입, 주요 발전소의 개건·보수에 힘입어 발전량이 전년비 다소 증가된 것으로 추정

<광업 및 금속공업>

- 북한은 최근 중국의 철강 및 금속제품의 수요증대에 따라 채취금속공업부문을 수출전략 산업화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철광석 및 전기아연 생산목표를 각각 전년비 1.4배로 설정)

- 광업 및 금속공업부문 건설동향은 '04년부터 중국의 투자 유치를 통한 무산광산의 개발을 비롯한 10여개 주요광산의 개건·현대화를 추진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김책제철(4호해탄로), 황해제철(100톤 전기로), 9월제철(삼화철 생산기지) 등 대규모 철강공장들의 개건·보수 및 시설확장을 추진
- o 광업(채취공업)부문의 생산동향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검덕 광업연합기업소 등의 대규모 기업소는 상반기계획에 미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광업부문의 생산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철강공업은 비교적 호조를 보였음

<기계 및 조선공업>

- o 기계공업부문은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희천공작기계공장 등 대형기계공장들의 개건·현대화사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

<화학 · 건재공업>

- o 예년과는 달리 질소비료 생산목표를 전년비 1.2배로 제시하는 한편 수년내에 화학비료 수요를 자체생산으로 보장한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

※ 남흥청년화학,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 비료공장과 2.8비닐론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및 능력확장에 주력

- 그러나, 생산기술공정의 낙후, 시설노후 등으로 화학비료 수급 애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건재 및 경공업>

- 건재공업부문은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완공되고 일부 세멘트 공장의 소성로에 대한 기술개선이 추진되어
 - 건축용 판유리를 비롯한 만성적인 유리공급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멘트 생산은 대체로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

- 경공업부문은 경공업공장의 개진·현대화를 통한 1차소비품의 증산과 품질향상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70여개 이상의 공장·기업소가 개진·현대화를 완료, 경공업 생산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마. 수송운수 및 정보통신산업

- 수송운수부문은 건설보다는 수송조직과 규율 강화를 통해 철도화물 수송량을 전년비 20% 증가시키고, 해상수송과 자동차 수송의 비중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 철도운수부문에서 연간계획목표를 조기 완수한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전국의 200여개 농촌리 단위에 광섬유 통신화가 실현되고 시·군 지역 전화를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하는 작업이 추진

바. 대외경제관계 및 무역

- 북한은 전통적 우호국가인 중국과의 교역·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지원 확보 등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한 가운데
 - 러시아 극동지역 및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자원부국들과의 활발한 경제외교를 통해 자원도입 및 시장개척 등 同 지역 진출의 거점 마련에 치중하였으며
 - 서방권과의 선진 경제무역 실무지식·정보 습득 모색 등 외자유치 및 경제개방을 위한 환경개선에도 주력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연도중 다각적인 대외경제협력 활동을 통해 무역확대 및 광업·기계·경공업 등 분야의 공장·기업소 개건·현대화 사업 추진기반 마련에 치중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됨.

사. 경제관리 개선 및 주민생활 여건

- '05년도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동향은 변화의 속도를 조정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같은 움직임은 7.1조치 이후 파생된 경제·사회적 후유증의 심각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 원칙 하에서 운용되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민들의 식량사정은 당창건 60돌을 기해 식량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나, 대외지원이 없을 경우 '06년 봄철이후 다시 어려워질 전망

아. 전 망

- 북한은 '06년도에도 곡물증산·생필품 증산 등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 에너지·금속 등 기간산업 및 경공업 공장들을 중심으로 개건·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개건·현대화사업을 중요한 경제 전략으로 내세우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신적으로 내밀어야 한다”
(‘06. 1.1 신년공동사설)
- 또한,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내각의 기능을 강화, 내각·경제 관료 중심의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 외화부족 및 배급제로 인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재정·금융분야에서의 개혁조치를 취할 가능성
-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경제문제, 핵문제, 인권문제 등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 구사회주의 국가와의 전통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하면서
 - 민족공조 논리를 내세워 남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요구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부록 1>

< 2005년도 경제분야 관련 행사 개최 현황 >

시 기	내 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보-군보-청년보 공동명의로의 신년사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1.1, 중·평방, 중앙TV) ·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함경북도 근로자들의 쫓기모임 (1.3, 중앙TV) · 청년전위(1.6), 농업근로자·철도성·인민보안성(1.9), 여맹(1.10), 새해 공동사설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 (중·평방, 중앙TV) · 평양시(1.6), 평안남도·자강도·강원도(1.9) 새해 공동사설 관철 위한 군중대회 (중·평방, 중앙TV) · 평안남북도·강원도(1.7), 황해남도·함경남도·양강도(1.9) 강성대국 건설 위한 군중대회 (중·평방, 중앙TV) · 김정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1.13, 중 평방) · 김정일, 9월제철종합기업소 현지지도 (1.14, 중·평방) · 김정일, 락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1.15, 중방) · 김정일, 제966 군부대 돼지공장 시찰 (1.29, 중방) · 농근맹 중앙위, 인민문화궁전에서 제49차 전원회의 (1.31, 중방)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2.4, 중방) · 직총 중앙위 제53차 전원회의 2.4, 중·평방) · 선군혁명총진군대회 호소문 관철을 위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군중대회 (2.28, 중·평방)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나무심기 쫓기모임 (3.2, 중·평방) ·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3.16, 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자들, 선군혁명 쫓기모임 (3.18, 중·평방)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회의 (중·평방, 중앙TV)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인민군 군인들의 쫓기모임 (4.28, 평방)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절 기념 중앙보고회 (5.1, 중·평방) · 제20차 중앙과학기술축전(5.3~5.6, 중·평방) · 무역성-유엔개발계획 공동주최 무역토론회 (5.4~5.5, 중방) · 제8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5.16, 중·평방) · 「제5차 5.21 건축축전」 (5.18~19, 중방)

시 기	내 용
6월	· 고려-글러벌 신용은행,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개업 (6.3, 중방)
7월	· 김일성 유훈 및 김정일에 대한 농업근로자들의 맹세모임 (7.6, 중방) · 당 창건 60돌 즈음 공동구호 관철 군중대회와 쫓기모임 (7.7, 중방)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10차 회의 (7.10, 중방) · 김정일, 새로 건설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 시찰하시였다 (7.18, 중·평방) · 제3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 전시회 (7.19, 중방) · 김정일, 원산만제염소 현지지도 (7.23, 중방) · 남북 수산협력분과 제1차 회의 (7.25~7.27, 중방) ·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분과 제5차 회의 (7.28~7.30, 중방)
8월	· 「제5차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 (8.8~10, 중·평방) · 당창건 60돌 기념 전국과학기술발표회 개막 (8.23~27, 중방) · 제6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 (~27, 중방)
9월	· 김정일,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시찰 (9.1, 중방) · 제32차 전국농기계전시회 (8.30~9.1, 중·평방) · 전국과학기술발표회 (8.30-9.1, 중·평방)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가 운영하는 「4월16일 염소목장」시찰 (9.5, 중방) · 김정일, 황해북도 미루별 현지지도 (9.6, 중방) · 제6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 (9.5~8, 평방) · 김정일, 개건된 광포오리공장(함남 정평군 소재) 현지지도 (9.15, 중방) · 김정일, 단천(함남) 내화물공장 현지지도 (9.16, 중방) · 김정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흥남제약공장 현지지도 (9.17, 중방) · 김정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9.18, 중방) · 제16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9.13-20, 평방) · 김정일, 966군부대 발전소 시찰 (9.22, 중방) · 황북·함남 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9.23, 중방) · 당 창건 60돌 즈음 주체의 산업미술연구토론회 (9.27~ , 중방) · 당 창건 60돌 기념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9.30~ , 평방)
10월	· 전국연구토론회 (10.4, 중·평방) · 김정일,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식 참석 (10.9, 중·평방) · 「전국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운동선구자대회」 (10.24~27, 평방) · 청년동맹 중앙위 제31차 전원회의 (10.25, 중방) · 전국과학자·기술자 돌격대운동 선구자대회 (10.26, 중방) · 김정일·후진타오, 대안친선유리공장 참관 (10.29, 중방)

시 기	내 용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평양시내 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 (11.1, 중방) - 평양326전선공장, 평양승강기공장, 평양자전거합영공장 · 김정일, 군인들이 건설한 115호 오리공장(5만여㎡) 시찰 (11.6, 평방) · 김정일, 새로 건설된 '내평2호군민발전소' 시찰 (11.8, 중방) · 평양3.26전선공장·평양승강기공장, 김정일 현지지도 관철 쉼기모임 (11.10, 중방) · 평양 안악중학교, 토끼 기르기 경험 토론대회 (11.29, 중방) · 제1차 전국경락학술토론회(11.29~30) (12.1, 중방)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직충」일꾼 열성자대회」 (12.1, 중 평방) · 김정일,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현지지도 (12.4, 중방) · 김정일, 백마-철산물길 현지시찰(12.5, 중방) · 김정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및 북중전극공장 현지지도 (12.6, 중방) ·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12.6~7, 평양) (12.7, 중방) · 김정일, 영남배수리공장에 새로 건설된 2호도크 현지지도(12.14, 중방) · 전국농촌청년 작업반장 결의모임(곡산군 평암협동농장) (12.14, 중방) · 김정일, 용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직장들 현지지도 (12.16, 중방) · 전국농업부문 「26호모범기대 운전공 경험발표회」 (12.19, 중방) · 김정일, 돼지원종장과 육류냉동고시설 현지지도 (12.24, 중방) · 인민생활공채 4차 추첨행사, 해주시에서 진행(12.26, 중앙 TV)

<부록 2>

< 2005년도 주요 경제건설 실적 >

시 기	내 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시, 신평-금산 자연흐름식 물길 완공(1.1, 평방)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로천분광산, 15만산 대발파 (1.2, 중방) · 전국 당 선전일꾼 돌격대원들, 삼수발전소 건설 위한 30만산 발파(1.4, 중방) ·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자, 22만산 대발파 (1.19, 중방) · 삼수발전소 건설장, 150만산 대발파 (1.28, 중방)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선청년2호발전소 조업 (2.13, 평방) · 평남 금성간석지 내부망 공사 준공 (2.26, 중방)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마-철산 수로 구간 중 백마저수지 배수구막이 공사 완료(3.17, 평방) · 황해북도 사리원시 방대한 규모의 배수로공사 완공(3.18, 중·평방) · 개천-태성호 물길건설로 전국적으로 700여리 자연흐름식 물길 형성 (3.20, 중·평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모래하선 부두건설을 위한 준비공사 완료(3.23, 중방)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삼청광산 조업 (4.6, 중방) · 혜산 어린이식료공장 콩우유직장 완공 조업 (4.15, 중·평방) · 신의주 콩우유공장 완공 조업 (4.15, 중방) · 함경남도 금진강 「홍봉청년발전소」 준공(4.18, 중방) · 광포 오리공장(함경남도), 현대적으로 개건 조업 (4.19, 중방) · 무산(함북)-남평 국경다리(北-中) 완공 (4.21, 중방)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흥군(황해북도) 일꾼들, 농사 목적의 자연물길(20 여km) 공사 완공(5.4, 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종업원들 위한 살림집 건설(5.10, 평방) · 홍주청년 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1기의 발전기 조립 완료(5.20, 중·평방)

시 기	내 용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수발전소 40만산 대발파 (6.2, 중방)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채광과 박토처리를 위한 14만산 대발파(6.9, 중방) · 봉림광산 선광장 개건 및 2호발전소 건설 조업 (6.23, 중방) · 황해남도 여단 건설자들, 백마-철산 물길공사 3개 대상의 물길굴 공사 완공 (6.24, 중방) · 구장세멘트공장, 10만산대발파 (6.25, 중·평방) · 남천광산(함남) 개건 준공 (6.28, 중방)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건확장된 남천탄광 준공 (7.4, 중앙TV) · 대안친선유리공장의 모래하선부두 및 전용철길공사 완공(7.18, 중방) · 온천제염소 준공 (7.19, 중방) · 「3월26일공장」 전선분공장 조업 (7.22, 중방) · 선군시대의 농촌변화를 소개하면서 지난 4년간 10만세대의 농촌 살림집 건설 (7.24, 평방) · 삼수발전소 50만산대발파 (7.28, 로동)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군, 150여세대 현대적인 살림집 완공 (8.4, 평방) · 청산리, 70여 세대 현대적인 살림집 완공 및 새집들이(8.6, 중방) · 리원군에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을 완공 (8.13, 민주)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기존 오리목장을 종합목장으로 개건 확장 (8.18, 중·평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자들, 구내 도로포장공사 완료(8.26, 평방) · 백마-철산 물길굴 공사 완료 (8.28, 중방)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오리공장, 개건 현대화 공사 마지막 단계 추진 (9.6, 평방) · 개성시, 현대적인 살림집 130여 세대 완공 및 60여세대의 농촌 살림 집 건설(9.12, 평방) · 평남 북창오리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주력(9.15, 중방) · 함흥시(함남), 큰 규모의 수동저수지 완공-100여 정보의 논 새로 개간 (9.24, 중방) · 홍남시 일꾼 및 근로자들, 용신지구의 저수지 건설 완공(9.26, 평방) · 라선시, 1천여세대 살림집 완공 및 새집들이 (9.27, 중방) · 회천경질유리그릇공장(평북), 조업 (9.28, 중방) ·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가성소다 생산공정’ 조업 (9.29, 중방) · 「회령5호광산」 건설 조업 (9.29, 중방) · 부전감자전분공장 조업 (9.30, 중방) · 2월25일광산 조업 (9.30, 중방) · 수성천2단계발전소 조업 (9.30, 중방)

시 기	내 용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마-철산 물길공사(총연장 270여 km) 준공 (10.2, 중방) · 개천철도국 구룡강 1호 청년발전소 건설 조업 (10.3, 중방) · 명례군민저수지(황남) 건설 조업 (10.3, 중방) · 라선기초식품공장 조업 (10.4, 중방) · 수성천 2단계 1·2·3·4·5호 발전소 준공 (10.5, 중앙TV) · 자강도 위원임산2호발전소 준공 (10.5, 중앙TV) · 영원발전소 언제(댐) 준공 (10.5, 중방)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철직장 100톤 전기로 조업 (10.6, 중방) · 희천 동문2호발전소 완공 조업 (10.6, 중방) ·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조업 (10.6, 중방) · 평양자전거 합영공장 건설 조업 (10.7, 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 (10.10, 로동) · 「9월제철종합기업소」 삼화철 생산기지 조업 (10.14, 중방) · 평성시(평남) 염소목장 건설 조업 (10.14, 중방) · 황해남도, 계남목장 능력확장 3단계 공사 완공 (10.14, 중방) · 함경남도 리원군, 군 소재지와 농촌 리들에 70여동의 살림집 건설 (10.14, 중방) · 어랑천발전소 팔양언제 1단계 조업 완공 (10.15, 중방) · 강계시(자강도) 향로지구, 남천군민청년발전소 건설 조업 (10.15, 중방) · 덕성군(함남), 5개월 동안 12개 중소형발전소 건설 (10.15, 중방) · 문덕군, 해안방조제 공사 완공 (10.16, 중방) · 고원군, 덕지강 13호 발전소 건설 (11.19, 중방) · 승호철도청년발전소 조업 (10.21, 중방) · 「성장 4호 발전소」 조업 (10.24, 중방) · 내평2호군민발전소(강원도) 조업 (10.31, 중방) · 삼수발전소 건설장에서 20만산 대발과 (10.31, 중앙TV)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수발전소 10만산 대발과 (11.2, 중앙TV) · 단천제련소(함남) 개건현대화 공사 완료 준공 (11.8, 중방) · 5월12일대성공장 건설 준공 (11.8, 중방)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제17,18 조직갱 준공 (11.9, 중방) · 현대적인 5월12일대성공장 준공(11.9, 로동)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제17, 18수직갱 준공 (11.10, 중방) · 수동구(함남)에 새로 건설된 덕지강 7호발전소 조업 (11.12, 중방) · 로창대홍수산사업소, 밥조개 양식장 건설 (11.27, 평방)

시 기	내 용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대홍수산업소, 밥조개 양식장 건설 (12.1, 중·평방) · 자강도, 연간 살림집 건설계획 초과 수행 (12.3, 중방) · 5만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 건설 (12.6,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용악산 일대, 강서군 청산리, 라선시, 박연지구를 비롯해서 전국 도처 · 성간군, 읍지구에 현대적 살림집 건설 (12.29, 평방) · 대각청년발전소 준공 (12.29, 중방) · 북창오리공장 개건현대화 준공 (12.29, 중방) · 남양정제소금공장 준공 (12.30, 중방)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조업 (12.30, 중방)

< 부록 3 >

2005년도 북한경제 주요일지

■ 1.1(토)

-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제하로 당보·군보·청년보 신년공동사설 발표(중·평방)
- 공동사설을 받들기 위해 각지에서 전력생산자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선전(중방)
- 박봉주 총리, 대안친선유리공장 중국 기술실무대표단 숙소 방문(중·평방)
- 구성시, 신평-금산 사이의 자연흐름식 물길 완공 보도(평방)

■ 1.3(월)

- 노동신문 사설, '모두 다 선군혁명 총진군 앞으로' 제하로 신년공동사설의 실천 촉구(중방)
- 각지 철도국, 새해 첫날 철도수송계획량 초과 달성(중방)

■ 1.4(화)

- 경제부문 주공전선인 농업전선 지원사업 진행과 농업성 김광호 부상 인터뷰(중방)
- 경공업성의 신년공동사설 반향 보도(중방), 과학원의 신년공동사설 반향 보도(평방), 국가계획위원회 최배진 부위원장의 연단 보도(중방)
- 신년공동사설 관철에 나선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소개(평방)

■ 1.5(수)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각계의 농촌지원 소식 보도(중방)
- 직업총동맹중앙위 부위원장 김성철 등, 공동사설 제시과업 관철 결의(중방)
- 농업성의 다수확품종 확보 등 식량문제해결 관련시책 소개(평방)
- 선교편직공장에 3대붉은기 수여식,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앙TV)
- 인도네시아 등 지진해일 피해국가에 15만달러 긴급원조 제공 결정(중방)

■ 1.6(목)

- 김정일, 밤생산 잘한 배천군 화산협동농장 밤작업반원 등에게 감사 전달(중방)
- 전국적인 거름생산과 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각각 119%, 109%에 이름(중방)
- 평양시, 새해 공동사설 관철 위한 군중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중·평방)
- 청년전위들, 공동사설 관철 쫓기모임 전승광장에서 진행(평방)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철도성 종업원 쫓기모임 진행(중방)

■ 1.7(금)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평남·평북도 및 강원도 쫓기모임 진행(중방)

■ 1.8(토)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자강도 군중대회 쫓기모임 진행(중방)
- 평양시민들에 대한 군밤·군고구마 봉사를 위해 280여개 매대 설치(평방)

■ 1.9(일)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황해남도·함경남도·양강도 군중대회 진행(중방)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쫓기모임, 안악군에서 진행(중방)

■ 1.10(월)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쫓기 모임 진행(중방)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함경북도 군중대회 진행(중방)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산업현장의 노력 선전
 - 개천철도국 새해 첫주 수송실적 초과달성(평방)
 - 평안남도 탄광들 채탄실적 초과달성(중·평방)
 - 과학원 함흥분원 연구사업에 매진(중·평방)
 - 평양탄광기계공장 높은 생산성과 달성(중방)
 - 각지의 임산갱목생산사업소 일정계획 초과달성(평방)
 - 대동강발전소 높은 전력생산 성과 거양(중방)
- 논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해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제하로 신년공동사설 관철 촉구(중방)

■ 1.11(화)

- 논설,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자' 제하로 공동사설의 분야별 과업 설명과 달성 촉구(중방)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황해남도·양강도·자강도·함경남도·황해북도 군중대회 및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쫓기대회 진행(중·평방)
-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생산성과 등 신년공동사설 관철 노력 선전(중·평방)
- 평양필름공장,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1.12(수)

- '북·중 친선의 상징'인 「대안친선유리공장」 조속한 건설 독려(중방)
- 평양제약공장이 효능 높은 의약품 생산에서 성과(중방)
- 송남청년탄광이 석탄생산에서 혁신적 성과(평방)

■ 1.13(목)

- 김정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방)
-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공장, 기업소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쫓기모임 진행(중방)
- 전기석탄공업성 종업원들과 평양철도국 종업원들의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쫓기모임 진행(중앙TV)
- 천내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및 강서탄광에서 생산성과 초과(중방)
- 서평양기관차대 소속 「붉은기 5105호」 기관차, 350만km 무사고 주행(중방)

■ 1.14(금)

- 김정일, 「9월제철종합기업소」 현지지도(중방)
-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등 9개 농장·공장기업소에서 신년공동사설 관철 쫓기모임 진행(중방)

■ 1.15(토)

- 김정일, 락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방)

■ 1.16(일)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산업현장의 노력 선전(중방 등)
 - 황해남도 각지의 농촌지원
 - 사리원 기계공장의 목표초과 수행
 - 중앙·지방기관들의 고철 수집
 - 청남수출피복공장·원산유리공장 성과
 - 영변견직공장 성과

■ 1.17(월)

-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의 생산 혁신 및 삼수발전소 건설지원(중·평방)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발전설비 생산성과(중·평방)
- 6월4일차량공장의 제관품 생산 혁신(중·평방)
- 함흥기초식품공장의 장류생산(중·평방)

■ 1.18(화)

- 김정일, 산림조성사업 등의 성과에 대해 금강군 산림경영소 등에 감사전달(중방)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김정일의 현지지도 지시 관철 노력(평방)
-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시내 승리거리의 주택 내부공사 추진 (중방)

■ 1.19(수)

- 신년공동사설 관철 노력 선전
 - 인비료공업관리국 아래 공장 기업소(중방)
 - 부령합금철연합기업소·정주기관차대·은파군 협동농장들 성과(중방)
 - 삼주군 용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덕관 연단(중방)
 - 채취공업성 광업관리국 광산 성과(중방)
 - 청진 트랙터부속품공장 성과(평방)
- '실천에서 정당성이 확정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자' 제하로 농업부문의 신년공동사설 과업 관철 촉구(중방)
-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등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고무되어 높은 생산성과 거양(평방)

■ 1.20(목)

- 김정일, 용천피해복구사업에 기여한 평북제련소 일꾼과 종업원들에게 감사전달(중앙TV)
- 신년공동사설 관철 노력 선전(중방, 중앙TV 등)
 - 개풍군내 근로자 등 농촌지원
 - 천리마제강연합소 쫓기모임
 - 청진강재공장 생산성과
- 만경봉92호의 입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현지사의 권한으로 입항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항만관리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난 (중앙 TV)
- 러시아 가즈프롬회사(가스생산·공급업체) 대표단, 평양도착(중방)

■ 1.21(금)

- 김일성·김정일의 은율광산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 (중방)
- 러시아 가즈프롬회사 대표단(단장 알렉세이 밀레르 이사장), 만수대의사당에서 박봉주 면담후 귀국(중방)

■ 1.23(일)

- 베트남, 북한과 수교 55주년 기념 집회 진행(중방)

■ 1.24(월)

- 김정일, 대홍청년광산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신년공동사설 관철 노력 소개
 - 평안남도내 전력생산 노력(평방)
 - 황해남도내 농사준비(중방)
 - 성간임산사업소의 통나무 생산 노력(평방) 등
- 봉화총국 창립 3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1.25(화)

- 중국 기상국, 북한 기상수문국에 기상자료 통신설비 등 기증(중방)
- 함경남도 단천시, 항구지구에 수십 헥타르의 소금밭 건설 추진(평방)

■ 1.26(수)

- 논설,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자' 제하로 분야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자고 촉구(중방)
- 평북도당, '05년1월 김정일의 현지도 과업관철 궤기대회 신의주에서 진행(중방)

■ 1.27(목)

-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노력 선전
 - 장자강발전소에서 전력생산 초과달성(평방)
 - 장진군당에서 경제선동대 조직(중방)
 - 강원도 임업연합기업소에서 통나무생산 초과달성(평방)
- 경제대표단(단장 이명산 무역성부상), 북·몽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회위원회 회의 참가위해 평양 출발(평방)

■ 1.28(금)

- 무역성, 김일성의 무역성 당 총회 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신년공동사설 관철 노력 선전
 - 영월발전소 등 건설(평방)
 - 예성강발전소 건설(평방)
 -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중방)
 - 남포시 덕해협동농장(중방)
 - 개풍군(중방) 등
- 삼수발전소 건설장, 150만산 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중방)
- 인민보안성 등 각 기관, 대안천선유리공장 건설지원과 현장 방문(평방)
- 신의주화장품공장, 봄향기 화장품 개발 선전-효능, 판매점, 문의 전화번호 안내(중방)

■ 1.29(토)

- 김정일, 제966 군부대 돼지공장 시찰(중방)

■ 1.30(일)

- ‘위력한 자립적 국방공업을 마련하시어’ 제하로 “무적의 군대와 자립적인 국방 공업을 가지고 있고全民무장화·전국요새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 되었다”고 선전(중방)
- 경공업성 허태권 부상, 인터뷰를 통해 「내의류·학생교복과 신발」 생산 및 기초 식품공장, 어린이식료품공장 등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 역량집중 강조(평방)

■ 1.31(월)

- 신년공동사설 관철 노력 선전
 - 함북 임업연합기업소 생산성과 확대(평방)
 - 평양방직공장 천 생산 혁신(중방)
- 경공업성 계획국장의 연단, ‘옳은 작전과 지휘에 따라 소비품 생산이 높아진다’(중방)
- 농근맹 중앙위, 인민문화궁전에서 제49차 전원회의 진행(중방)

■ 2.3(목)

- “선군혁명 총진군에 나선 근로자들이 1월 계획을 빛나게 완수했다”고 선전(중·평방)
- 각 부문별 1월 사업계획 완수 보도(중방)
 - 전력생산 102%, 채취공업성 102.7%, 전자공업성 148%, 건설부문 125%, 임업 부문 113% 등
- 신년공동사설 관철 노력 선전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전력생산계획 초과달성(평방)
 - 새별군에서 농사에 역량을 총집중·총동원(중방)
 - 각 도·시·군에서 농촌지원사업에 총력(평방)
 - 각지 전력생산자들이 1월 전력생산계획 초과달성(중방)
 - 건설건재공업성에서 1월 계획을 성과적으로 결속(중방)
- 김정일 생일 관련 보도
 - 과학원 함흥분원에서 2월 명절을 맞으며 실적 초과달성 결의(평방)
 - 청진화력발전소에서 2월 명절을 앞두고 전력증산에 총력(평방)
- 러시아 옴스크 소재 트란스마쉬社가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 50대 도입

■ 2.4(금)

-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평양에서 진행(중방)
- 직총 중앙위 제53차 전원회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평방)

■ 2.5(토)

- 김정일,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모범을 보인 강계시 등 19개시군에 선물(중방)

■ 2.6(일)

- 김정일 생일 관련 보도
 - 2월 명절을 맞으며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생산성과 양양 투쟁(중방)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민주조선)

■ 2.7(월)

- 중·조 친선 홍성농장, 태암협동농장에서 운전기 기증식(중방)

■ 2.8(화)

- 북·몽골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협의위원회 북한 경제 대표단, 귀국(중방)

■ 2.11(금)

- 저수지 물채우기 실적이 지난해 보다 103% 높다는 등 농업용수 확보 노력 보도(중방)

■ 2.13(일)

- 조선노동당 중앙위, 중앙광물자원조사단 탐사대원 등에게 감사문 전달(중방)
- 라선청년2호발전소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평방)

■ 2.14(월)

- 김정일이 보낸 운전설비 전달모임, 삼수발전소에서 진행(중방)

■ 2.15(화)

- 모범적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에 대한 정령, 2.8 발표(중방)
- 「2.17과학자·기술자 돌격대」가 중공업·석탄·전력 등 산업현장에서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에 성과(중통)

■ 2.19(토)

- 평북, 콩 농사 준비에 박차 - 우량품종 확보, 적지선정, 질 좋은 거름과 흙보산 비료, 과학기술지식보급 등 강구(중방)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표단(왕자루이 단장) 평양도착(중·평방)

■ 2.20(일)

- 평북 성간군, 전기를 쓰지 않는 무동력 상수체계 실현(중방)

■ 2.21(월)

- 노동신문 사설, '선군혁명 총진군에서 일꾼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 경제지도일꾼들에게 「과학적 타산」, 「사회주의원칙 준수」, 「최대한의 실리 추구」 강조
- 방북중인 중국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대표단, 서해갑문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장·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참관(중방)

■ 2.22(화)

- '농사차비에서는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하로 협동농장 일꾼 및 농업근로자의 농사 준비상황 등 소개(중방)
- '조선-쿠웨이트 친선협회결성식,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중방)
- 백마-철산물길공사, 마감단계에서 추진(평방)

■ 2.23(수)

- '선군혁명 총진군의 앞장에 선 청년전위들' 제하로 청년동맹원들의 경제부문 노력 성과 소개(평방)

■ 2.24(목)

- 지난 10년간 청년들의 건설지원('680여개 기념비적 창조물') 성과 보도(중방)
- 주북 러시아 대사, '북-러 친선고창협동농장'을 방문 농사일 지원(평방)

■ 2.25(금)

- 선군혁명총진군대회 호소문 과업 관철을 위한 평안남도·양강도·황해남도·자강도·함경남도 군중대회 진행(중방)

■ 2.26(토)

- '선군청년선구자대회', 평양에서 진행(중·평방)
- '수령의 유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제하로 청산협동농장 일꾼들의 농사채비 강조(중방)
- 평남 금성간석지 내부망 공사 준공(중방)

■ 2.28(월)

- 선군혁명총진군대회 호소문 관철을 위한 평안북도·황해북도·함경북도 군중대회 진행(중·평방)

■ 3.2(수)

- 오늘(3.2) 김정일이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를 발표한지 22돌 되는 날로 올해 경공업공장들의 개건·현대화와 인민소비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중방)
- 식수절(3.2)을 맞아 국토환경보호성 박호영 부상 등 출연, 식수사업 독려(중방)
 -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나무심기 쫄기모임 진행(중·평방)
 - 인민무력부 나무심기 군인쫄기모임,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진행(중·평방)

■ 3.3(목)

- '선군혁명총진군 길에 빛나는 청년전위들' 제하로 경제건설의 주공전선 '농업' 강조(중방)
- 국토환경보호성,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진행될 나무심기 등 사업 설명(중방)

■ 3.4(금)

- 토지정리에 참가한 일군들·돌격대원들에 대한 표창식 정주시에서 진행(중·평방)
- 김정숙군 신상협동농장 청년분조 등 10여개 단위에게 「3중 모범청년분조」, 「3중 모범청년작업반」 칭호 수여 및 청년중앙회관에서 김정일의 문화기재 전달식 진행(중방)

■ 3.5(토)

- 자강도 「강계닭공장」, 폐설물을 가지고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생산(중방)
- 황해북도 농업근로자들, 콩농사 준비에 박차(중방)

■ 3.6(일)

- 황해남도 배천군, 냉상모판(보온못자리) 씨뿌리기 준비에 박차(중방)
- '미더운 수의축산일꾼들이 자란다' 제하로 평성수의축산대학 소개(평방)

■ 3.7(월)

- 대안친선유리공장 골조공사 일부 마무리(중방)

■ 3.8(화)

- 김정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및 삼수발전소 건설지원자들에 감사 전달(중방)

■ 3.9(수)

- 농촌마을 정원과수재배경험발표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방)

■ 3.10(목)

- 김정일, 삼수발전소 건설장에 유압식 굴착설비 전달-정하철 비서 현지전달(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의 용해장과 성형장 강철 구조물 조립공사 시작(중앙TV)

■ 3.11(금)

- 김정일, 삼수발전소 건설장에 유압식 굴착설비 전달 - 정하철 비서 현지전달(중방)
- 김일성·김정일화온실, 자강도 고흥군에 새로 건설 개관(중방)

■ 3.12(토)

- '파철수집 및 집중수송' 실적을 소개하며 철강재 생산을 강조(중방)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 성과 치하(평방)
- 스웨덴 외무성 대표단 평양 도착(중·평방)
- 사로청대표단(단장 중앙위 김경호 비서), 시리아 방문 위해 평양 출발(중·평방)

■ 3.13(일)

- 라선시에서 두만강 호안투석공사 진행(중·평방)
-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의 기술 개선 치하(중방)
- 자강도임업연합기업소 등에서의 목재 도벌실적 증대 치하(중방)

■ 3.15(화)

- 조선노동당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수풍발전소 등 314개 기업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 우승기」 수여 결정(중방)
- '은정속에 마련된 민족음식 집기류 생산기지' 제하로 보통강철재일용품공장의 늦그릇 생산 및 효율성 등 소개(중방)
- 함흥대극장 앞 광장, 중소농기구 전시회(85개 도급기관·기업소 참가) 진행(중방)

■ 3.16(수)

-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평양에서 진행(중방)
- 김정일, 함경북도 현지도 30돌 기념 보고회 온성군에서 진행(중방)
- 당 중앙위, 대형수산물가공모선 백두산호의 100항차 무사고 운항 등 성과를 격려하는 감사문을 선원들에게 전달(중방)
- 양강도 대흥단군에 정착한 1,200명의 제대군인 부부들, 감자농사에 앞장(중방)
- 대표단(양형섭 단장),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도착(평방)

■ 3.17(목)

- 김정일, 제대군인 대학생들의 교양사업에 이바지 한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교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백마-철산 수로 구간 중 백마저수지 배수구막이 공사 완료(평방)

■ 3.18(금)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자들, 선군혁명 쉼기모임 진행 - 광범기 부총리 참석 (중·평방)
- 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에서 김정일화 재배방법 성공(중·평방)
- 황해북도 사리원시 방대한 규모의 배수로공사 완공(중·평방)
- 상품전람회, 3.10 「몽골민족정보기술관」에서 개막 보도(중방)

■ 3.19(토)

- 연백제염소 근로자들 올해 햇소금 생산 시작(중방)
- ‘당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각, 깨끗한 양심이 낳은 고귀한 결실’ 제하로 당의 경제정책과 방침을 일관되게 관철할 것을 촉구(중·평방)
- 북-러 정부간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56돌 기념 연회,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서 진행(중방)
- 중국에서 개최된 조-중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가했던 경제 무역대표단(단장 리용남 무역성 부상) 귀국(중·평방)

■ 3.20(일)

- 김정일, 전력생산과 공급에 기여한 일꾼과 근로자에 감사 전달(중방)
- 논설, ‘인민생활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고리’ 제하로 ‘식량문제, 먹는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업생산 증대 촉구(중방)
- 전국적 700여리 자연흐름식 물길이 새로 형성(중방)

■ 3.21(월)

- 북-러 친선협회,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56돌 즈음 영화감상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방)

■ 3.22(화)

- 개천-태성호 물길건설로 전국적으로 700여리 자연흐름식 물길 형성(평방)
- 「북-중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협조 협정」 조인(중방)
- 시리아 방문 사로청 중앙위 대표단(단장 김경호 중앙위 1비서) 귀국(중·평방)

■ 3.23(수)

- 김정일, 백두산지구 건설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김정일 현지도 30돌 기념보고회, 함남 김일성혁명사적관, 홍남항, 함주군 수흥·연포·동봉협동농장에서 각각 진행(평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모래하선 부두건설을 위한 준비공사 완료(중방)
- 평양시 국토보호관리국, 올봄 1,648만그루의 나무 식재(평방)
- 박봉주 내각총리,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 예방 및 자칭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담화(중방)
 - 연경맥주공장 참관(중방)
- 북-쿠바단결위원회 연차회의,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중방)

■ 3.24(목)

- 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신형 압축기 생산 현대화 사업 추진(중방)
- 신의주제지공장에서 현대적인 종이생산 설비 제작(평방)

■ 3.25(금)

- 북-중수력발전회사이사회 제56차 회의 결정서, 평양에서 조인(중방)
- 황해북도내 협동농장들에서 3.10현재 37만여톤의 흙보산비료 생산(중방)
- 함경남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두달남짓한 기간에 150여만톤의 거름과 52종 28만 9,870여점을 소농기구들을 협동농장에 전달(평방)

■ 3.26(토)

- 국가건설감독성·건설건재공업성, 김일성의 국가건설위원회 당총회 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평방)
- 김일성·김정일의 금속기계공업성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평방)
- 과학자들 「백두산 밀영고향집」 방문, 충성 결의모임 진행(중·평방)

- 박봉주, 요녕성 인민정부 성장 장문악과 담화, 요녕성 안산강철집단공사 심양 제1공장기계공장 참관(중방)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대표단(단장:최상진), 중국 방문위해 평양 출발(평방)

■ 3.27(일)

- 북한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조류독감 방지사업 추진(중방)
 -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성원의 말을 인용 “하당닭공장을 비롯한 2-3개 닭공장들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보도
- 박봉주, 요녕성 농업과학원 참관 및 귀국(중방)

■ 3.28(월)

- ‘선군혁명영도의 길위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 제하로 지난 10년간 산업건설 부문별 성과 선전(중방)
 - 생산시설 4만9,500여개 및 주택 45만 8천여세대 건설, 서해안 벌에 연 1천여리 관개망 형성 등
- 황해남도내 4,800여개 흙보산비료생산공장에서 약 한달간 수십만톤의 흙보산 비료 생산(중방)
-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올해 60만그루 묘목 생산을 목표(중방)
- 백마-철산 물길공사 구간중 긴 물길 터널인 「명굴」 공사를 조기 완공(중방)
- 「8월1일 청년제염소」, 올해 첫 소금 생산 시작(중방)
- 최고인민회의대표단(단장 최태복), 라오스 민족회의 의장과 회담 및 라오스 박물관·병원·면방직공장 등 참관(중·평방)

■ 3.29(화)

- 대학생과학탐구상 수여식,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청년동맹 김경호 비서 참석(중방)
- 황해남도 벽성군, 1,300여 헥타르의 면적에 산림 조성 계획(평방)
- 중국공산당 대표단(단장 중앙규율검사위원회 마윈 부서기), 평양 도착(평방)
- 독일·북한 의원그룹 위원장(하르트무트 코쉬크 연방위원), 평양 도착(평방)
- 양형섭(대표단), 앙골라 도착(중방)

■ 3.31(목)

- 평양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봄철 10만그루 나무식재(평방)

■ 4.1(금)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4.11 제11기 제3차 회의 소집 결정(중방)
- 노동신문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제하로 김일성의 업적 찬양과 김정일의 선군영도에 적극 따를 것을 촉구(평방)
- 각지 임산사업소에서 지난 3달간 연간 통나무생산계획의 70%이상 수행(평방)

■ 4.2(토)

- 3월말, 삼수발전소의 언제(독)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 보도(중방)
- 평남 평원군,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 360만 그루 식수계획 마련(평방)

■ 4.3(일)

- 전기석탄공업성 등 주요 내각, 경제 부문에서 1/4분기 및 3월 계획 완수(중방)
- 국가건설감독성에서 제7차 김일성화축전에 전시할 김일성화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중·평방)

■ 4.5(화)

- 과학연구사업과 인재양성사업에 기여한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진행(중방)

■ 4.6(수)

-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삼청광산 조업식 진행- 광범기 내각부총리 참석(중방)

■ 4.7(목)

-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단장 박성국), 러시아 및 중국 방문 위해 출국(평방)

■ 4.8(금)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대표단(단장 최상건 중앙위 부위원장),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중·평방)

■ 4.9(토)

- 체신대표단(단장 박명철 체신성 부상), 독일·프랑스·러시아 방문 출발(중·평방)

■ 4.11(월)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중·평방, 중앙TV)

■ 4.12(화)

- 청년동맹일꾼과 학생들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기념식수(중방)
- 김영남,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현장 방문 일꾼들 격려(중방)

■ 4.13(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강서군 청산농협 등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구성 제1중학교 등에 「3중 영예의 붉은기」 수여 정령 발표(중방)

■ 4.15(금)

- 혜산 어린이식료공장 콩우유직장 완공, 4.14 조업식(보고 김경호) 보도(중·평방)
- 신의주 콩우유공장 완공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4.18(월)

- 함경남도 금진강 「홍봉청년발전소」 준공(중방)
※ 김정일, 금진강 「홍봉청년발전소」 건설자들에게 감사문 전달(중방)

■ 4.19(화)

- 광포 오리공장(함경남도), 현대적으로 개건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4.20(수)

- ‘아버이 장군님의 사랑은 먹는 물에도’ 제하로 김정일의 상수도, 약수 등 먹는 물 개발 치적 선전(평방)

■ 4.21(목)

- 무산(함북)-남평 국경다리(北-中) 완공(중방)

■ 4.23(토)

- 김정일,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지원에 모범을 보인 일꾼과 근로자에 감사전달(중방)
- 사리원시, 「민속거리 2단계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킴(중방)
- 평양시, 두단오리공장(72ha부지, 60동 건물 규모) 건설을 힘있게 추진(평방)

■ 4.25(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지난해 축산정책 관철에 모범을 보인 55개 시·군 구역에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결정(중방)
- 북-중 품질 감독 및 품질 인증분야 에서의 협조계획서, 베이징에서 조인(중방)

■ 4.26(화)

-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4.26)을 맞아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라 소개(중방)

■ 4.27(수)

- 김정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일꾼들과 과학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김정일의 과학원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방)

■ 4.28(목)

-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단장 박성국), 귀국(중방)

■ 4.29(금)

- 김정일 노작 발표 20돌 기념회,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김중린 참석(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인민군 군인들의 쫄기모임 4.28 진행(평방)

■ 4.30(토)

- 김정일, 援軍사업 모범일꾼들과 근로자에 감사 전달(중방)
- 황해남도 농업건설설계연구소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공보위 대표단(단장 이주관),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차 평양 출발(중방)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단장 장용철), 라오스 방문차 평양 출발(중방)
- 재미·재일 의학자 대표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석차 평양 도착(평방)

■ 5.1(일)

- 김정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5.1절 기념 중앙보고회, 5.1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장에서 진행(중·평방)
 - 박봉주, 양형섭, 김중린 등 참석

■ 5.2(월)

- 김일성종합대학 통신박사원생들(中 연변대학 일꾼), 인민문화궁전에서 박사학위 수여식 진행(중방)
- 룡악산(평양시 만경대 구역) 일대에 현대적 살림집(590동) 건설 마감 단계(중방)

■ 5.3(화)

- 제20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김책공업대학에서 개막식 진행(중·평방)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자재상사, 3대혁명붉은기 수여 받음(중방)

- 온천군(평남) 간석지에 대규모 소금밭(200헥타르) 건설, 첫 소금 생산(평방)
- 국제기구 대표들 및 영국·독일 등 무역전문가, 「무역성」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 주최하는 무역토론회에 참가키 위해 평양 도착(평방)

■ 5.4(수)

- 평안남도 농업건설설계연구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서흥군(황해북도) 일꾼들, 농사 목적의 자연물길(20여 km)공사 완공(중방)
- 양강도, 함경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고산지대 농촌들 감자심기(중방)
- 체신대표단(단장 박명철), 독일·프랑스·러시아 등 방문후 5.3 귀국(중·평방)

■ 5.5(목)

- 무역성-유엔개발계획 공동주최 무역토론회, 5.4~5.5 양강도 국제호텔에서 진행(중방)
- 제7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5.4~5.5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방)
- 삼청광산 건설공로자(채광소대장 등 공훈광부 칭호 수여)표창식 (중·평방)

■ 5.6(금)

- 제20차 중앙과학기술축전(5.3~5.6진행),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폐막(중·평방)
- 북-태국 외교관계 수립 30돌 기념집회, 5.5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평방)
- 금진강 구창발전소(함남 정평군) 건설 독려 및 진척도 소개(중방)

■ 5.7(토)

- 김정일, 「농업과학원10월7일연구소」 노동자 등에게 감사 전달(중방)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영원한 흐름' 제작(중방)
 - 태천4호발전소 건설자들의 투쟁 모습을 통하여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 부각
- 육해운성 대표단(단장 김영일), 시리아 방문위해 출국(중·평방)

■ 5.9(월)

- 백마-철산물길공사의 기본언제가 드러났으며 10m 더 쌓으면 완공(평방)
- 김정일 노작 발표 5돌 즈음 양어사업의 중요성 강조(중방)

■ 5.10(화)

- 평남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올해 첫 모내기 시작(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에 종업원 숙소 40여동, 200여 세대 건설 중(평방)

■ 5.11(수)

- 과학원 레이저연구소, 절전용 나노 멸균기 연구 개발(중방)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탄산소다 증산 확장공사 주력(평방)
- 함흥목재가공공장 일꾼들,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110% 달성(평방)
- '선군혁명총진군은 혁명적 대진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중방)
 - 먹는 문제·식량문제를 풀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자고 촉구하면서 과학기술은 부강 조국 건설의 기본 열쇠라면서 과학과 기술에 의거한 투쟁만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다고 주장

■ 5.12(목)

- 김일성·김정일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5.5~11 문평제련소 등 강원도안의 여러 단위에서 진행(중방)
-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평안남도), 비료생산 주력 소식 보도(평방)

■ 5.13(금)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100톤의 '전기로' 건설 시운전 진행 소식(중방)

■ 5.14(토)

- 자강도,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1억 1,260 여만 그루 식수(중방)
- 제8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가 각국 대표단 평양 도착(중·평방)

■ 5.15(일)

- 대안친선유리공장 전용 철길공사(수 킬로미터 구간) 건설 박차(평방)
- '12월5일 청년광산', 생산능력 확장(완공후 생산능력 2.4배 증가)공사 진행(중방)
- 천내리시멘트공장(강원도), 3호 소성로 기술 개선으로 시멘트 생산 1.2배 증가 가능(평방)
- 北-시리아 정부, 5.11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조인(평방)

■ 5.16(월)

- 제8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중·평방)

■ 5.18(수)

- 평안남도, 황해남도 등 서해 어장에서 까나리 잡이 큰 성과(평방)

■ 5.20(금)

- 김정일의 노작, '건축예술론' 발표 기념일을 맞아 「제5차 5.21 건축축전」이 5.18- 19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중방)
- 홍주청년 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1기의 발전기 조립 완료(중·평방)

■ 5.21(토)

- 황해북도안의 협동농장들, 강냉이 심기(5.18 현재 94% 완료) 마무리 주력(중방)

■ 5.22(일)

-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전국 각지 각급 기업소 등 모내기 총동원 현재 170여 만명 동원(중방)

■ 5.23(월)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 주공전선인 농업증산 관철에 총력-전국적으로 강냉이 심기 90% 이상 달성(중·평방)
- 무산군,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어 홍암발전소 건설 진행(평방)

■ 5.24(화)

- 駐北 중국대사·직원들, 5.23 '朝-中 친선 태암협동농장' 모내기 지원(중방)

■ 5.25(수)

- 황해남도, 평안북도내 모내기 소식 보도(평방)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비료증산 노력 보도(중방)
- 황해남도 친선대표단, 중국 방문 출발(평방)

■ 5.26(목)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전기로'(100톤급) 신설(평방)

■ 5.27(금)

- 김정일, 원산청년발전소 건설현장 현지지도(중방)

■ 5.29(일)

- 「조-중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44차 회의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중·평방)

■ 5.30(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내각의 「금속기계공업성」을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중·평방)
- 룡심기 행사 마감단계(북부산간지대 완료, 전반적으로 75%) 진입(중·평방)

■ 6.1(수)

- 북-스위스 수교 30돌 기념 사진전시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평방)

■ 6.2(목)

- 사리원 트랙터 부속품공장, 5월 인민경제계획 279% 달성(중방)
- 한천수산사업소, 5월 수산물생산계획 160% 달성(중방)
- 신의주화장품공장, 기능성 화장품 등 제품 연구와 질 향상 주력(평방)
- 김정일 노작 '경공업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발표 15돌 즈음 경공업 발전상 소개(중방)

■ 6.3(금)

- 고려-글러벌 신용은행,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개업식 진행(중방)
- 모내기 실적, 5.31 현재 전국적으로 59.4%-지난해 대비 1.2배 실적(중방)
- 농업출판사, '농업에서 컴퓨터의 이용' 등 19종의 농업관련 과학도서 출판(중·평방)
- 駐北 영국대사관 직원들, 백송협동농장 농사일 지원(중·평방)
-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다그쳐 5월 계획 빛나게 수행(평방)
 - 화물 수송 100.7%, 임업부문 104%, 전자공업성 131.5% 수행

■ 6.4(토)

- 전국적인 모내기 실적 6.3 현재 앞그루 작물 재배면적을 제외한 전체 논 면적의 70%를 상회(중방)
- 전기석탄공업성 대표단(단장 주동일),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평방)
- 국제해사기구 총서기, 평양 도착(평방)

■ 6.5(일)

- 북-이탈리아 수교 5돌 기념 연회, 駐北 이탈리아 외무성 '개발협조사무소'에서 진행(중방)

■ 6.6(월)

- 경제대표단(단장 임경만), 아프리카 순방차 평양출발(중·평방)

■ 6.7(화)

- 김정일의 당사업 개시 41돌(6.19)을 앞두고 신의주신발공장에서 과업 관철 다짐 (중·평방)

■ 6.8(수)

- ‘농업전선 총공세 앞으로’ 제하로 “쌀은 곧 사회주의”라며 모든 역량을 총집중·총동원하여 사생결단의 신념과 투지로 농업전선에 나설 것을 강조(중방)

■ 6.9(목)

- 영월발전소 언제(독) 건설 및 대계도 간석지 제방공사가 마감단계에 진입(중방)

■ 6.10(금)

- 대흥단군 백두삼천리별 감자재배 경작지에 200여개 굴포(수로) 조성(중방)
- 駐北 몽골 대사관 직원들, 정방협동농장 일손돕기 지원(중·평방)

■ 6.11(토)

- 세네갈 정부대표단, 평양 도착(중·평방)

■ 6.13(월)

- 전국적으로 기본 논 면적 모내기 완료 - 자강도, 양강도, 함북 고산지대 일부 제외(중방)
- 황해남도내 농업근로자들의 보리 베기 및 자강도내 봄 누에치기 성과(중방)
- 駐北 독일 대사관 성원들, 영농 지원(평방)

■ 6.14(화)

- 北-中 건설자들, 대안친선유리공장 용해장 로 축조공사 마감단계 진행(중방)
- 무역은행 대표단(단장 오광철), 유엔무역개발회의 참가차 스위스 향발(중·평방)

■ 6.15(수)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장, 100톤 항만기중기 운반 설치(중방)
- 북한 주재 쿠바대사 및 직원, 조선-쿠바 친선 화성농업협동농장에서 농사일 도움(중·평방)

■ 6.16(목)

- 김정일, 봄철 영농 전투성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농업근로자·인민군 장병들·사무원·학생 등에게 감사 전달(중방)

■ 6.17(금)

- 김정일, 원화협동농장(평남 평원군)에 운전기재 전달식(전달자 김영남) 진행(중방)
- 김정일의 백두산지구 혁명성지 건설 지시 5돌 기념보고회, 삼수발전소 건설장에서 진행(중방)
-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 각지 농촌들에 수많은 영농물자들 전달(평방)

■ 6.18(토)

- 선교편직공장, 기술혁신운동으로 여러 건의 새 기술과 30여건의 창의 고안들을 생산에 도입(중방)

■ 6.19(일)

- 김책공업대학 전자도서관 및 체육관 건축 공사 마감단계 추진(중방)
- 최수헌, 카타르 제2차 남수녀자회의(6.15~16)에서 연설(평방)
 - 자력갱생에 의한 남남협조, 경제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 마련 등

■ 6.20(월)

- 황해남도에서 앞그루 작물(밀, 보리) 수확에 이어 뒷그루 작물(콩, 수수) 심기에 주력(중방)

■ 6.21(화)

- 김일성의 서평양기관차대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중앙은행 대표단, 스위스 국제결제은행 75차 연차총회 참가차 평양 출발(중방)

■ 6.22(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6.22)으로 “6.15공동선언의 이념에 따라 남북경제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중·평방)
 - 북한내각 : 35개부서 ⇒ 36개부서(3위원회, 29성, 1원, 1은행, 2국)

■ 6.23(목)

- 봉련광산 선광장 개건 및 2호발전소 건설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 및 건설 유공 광산 종업원들에게 김정일 감사 전달(중방)

■ 6.24(금)

- 황해남도 여단 건설자들, 백마-철산 물길공사 3개 대상의 물길굴 공사 완공(중방)

-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황북)·계남목장(황남), 우량품종 염소 보급(중방)
- 전국 각지의 협동농장 일꾼들, 병충해 예방 작업에 만전(중방)
- 駐北 러시아 대사와 직원들, 조선-러시아 친선 고창협동농장의 농사일 지원(평방)

■ 6.25(토)

- 김정일,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 및 중앙식물원 연구소 연구사 김광운에게 생일 70돌상 전달(중방)

■ 6.26(일)

- 서해항만건설사업소, 남포항 짐함(컨테이너)부두 건설 주력(중방)
- 北-예멘, 무역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 등 조인(중방)

■ 6.27(월)

- 과학원 함흥분원 유기화학연구소, 북한 실정에 맞는 효능 높은 새로운 농약들을 적극 개발하여 농업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 진행(중방)
- 경제대표단(단장: 임경만 무역상), 우간다공화국 대통령과 6.16 캄팔라에서 담화 및 우간다공화국과 「무역 및 경제협조발전에 관한 양해문」을 캄팔라에서 조인
※ 경제대표단(단장: 임경만 무역상), 케냐공화국과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양해문」을 나이로비에서 조인(중방)

■ 6.28(화)

- 남천광산(함남) 개건 준공식, 현지에서 진행-김정일 감사 전달(중방)

■ 6.29(수)

- 김일성 함북 현지도 20돌 기념보고회, 청진에서 진행(중방)
- 각지 근로자들의 6월 계획과 상반기 계획성과 보도(중방)
 - 채취공업성 106%, 강제청년발전소 111.7% 등 상반기 계획 달성
- 駐北 인도 대사 및 대사관 직원들, 갈천협동농장 영농지원(중·평방)

■ 6.30(목)

- 백두산지구 건설 5년 성과 보도(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착공 1년, 현재 전반적인 건설 공정률 85% 거양(중·평방)
- 농업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성과(중방)
 - 다수확 품종 개발, 무바이러스 감자종자 생산기술, 닭공장의 환기창 개조 기술 등
- 경제대표단(단장 임경만 무역상), 6.24 기네 수상 방문 친선 담화(중·평방)

■ 7.1(금)

- 김정일, 무역성 및 각 기업소·건설사업소·공장·농장 등에서 원군사업에 모범을 보인 일꾼 및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김일성 노작 '대학의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50돌 기념 교육부문 연구토론회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방)

■ 7.2(토)

- 김정일 현지도 30돌 기념보고회를 함경남도 내 여러 단위에서 진행(중·평방)

■ 7.3(일)

- 당 중앙위·중앙군사위, 공동구호 관철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진행(중·평방)
- 인민경제 여러 부문 상반기 실적 완수(중방)
 - 육해운성 무역집배 수송량 119.2%, 국내집배 수송량 122.2% , 전자공업성 125.3% 등
- 노동신문 사설, '당의 전투적 호소 따라 10월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 돌격 앞으로' 제하로 선군혁명 총진군 및 사상무장 강조(중방)

■ 7.5(화)

- 당 창건 60돌 즈음 공동구호 관철을 위한 道군중대회를 각 도에서 진행(중방)

■ 7.6(수)

- 김일성 유훈 및 김정일에 대한 농업근로자들의 맹세모임이 '원화협동농장'에서 진행(중방)

■ 7.7(목)

- 당 창건 60돌 즈음 공동구호 관철 군중대회와 쫓기모임을 자강도, 함경북도, 철도성, 인민보안성에서 진행(중방)

■ 7.8(금)

- 당 창건 60돌 공동구호 관철 군중대회가 구성시, 개성시, 흥남시, 김정숙군, 증산군, 성간군, 용진군, 안변군 등에서 진행(중방)

■ 7.9(토)

- 당 창건 60돌 즈음 공동구호 관철위한 군중대회가 라선시, 송림시, 문천시, 숙천군, 선천군, 낭림군, 신흥군을 비롯한 각지 시·군들에서 진행(중방)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10차 회의 참가하기 위해 대표단(단장 최영건) 평양 출발 (평방)

■ 7.10(일)

- 공동구호 관철위한 쉼기 모임이 용천군 장산협동농장·벽성군 조은협동농장 등에서 진행(평방)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10차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중방)

■ 7.12(화)

- 당창건 60돌 기념 공동구호 관철을 위한 쉼기모임 각지 농장·기업소 등에서 진행(중방)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종료(중·평방)

■ 7.13(수)

- 「조선자연환경보호기금」 설립(중·평방)
- 경협 10차 회의 북측 대표단, 회의 마치고 평양 귀환(중·평방)
- 중국 길림성 경제무역대표단, 평양 도착(중·평방)

■ 7.14(목)

- 육해운성 일꾼 및 정무원들의 남포항 집합(컨테이너)부두 건설과 '9월 10일 배수리공장' 능력 확장공사 등을 소개하면서 공동구호 관철 투쟁성과 소개(중방)
- 자강도, 누에고치 생산에 노력 집중(중방)

■ 7.15(금)

- 내각 경공업성, 당 공동구호 관철을 위한 경제조직사업 전개(중방)
- 사리원방직공장, 설비의 개건 현대화 사업 전개(평방)
- 평양창광옷공장 초급 당위원회, 공동구호 관철위한 조직 정치사업 전개(중방)

■ 7.16(토)

- 평양승강기공장, '수평팔 탐식 기중기'(타워크레인) 제작에 주력(평방)
- 중국 길림성 경제무역대표단, 방북일정 마치고 귀국(평방)

■ 7.17(일)

- 황해북도 탐사관리국 일꾼들 탐사현장에서 새로운 혁신 창조(중방)

■ 7.18(월)

- 김정일,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 시찰(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의 모래하선부두 및 전용철길공사 완공(중방)

■ 7.19(화)

- 제3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 전시회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중방)
- 온천제염소 준공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7.21(목)

- 「3월17일발전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를 현지에서 진행(중방)

■ 7.22(금)

- 「3월26일공장」 전선분공장 조업식 진행(중방)

■ 7.23(토)

- 김정일, 원산만제염소 현지지도(중방)
-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을 산림과학연구기지로 조성(중방)
- 구성담공장, 생산공정의 현대화 추진(중방)
- 중국 방직 및 피복공업 대표단, 평양 도착(중방)

■ 7.24(일)

- 당 중앙위 비서 등,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품가공공장 등 참관(중방)
- 선군시대의 농촌변화를 소개하면서 지난 4년간 10만세대의 농촌 살림집 건설 보도(평방)
- 「제1전력설계연구소」 창립5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7.25(월)

- 김일성의 자강도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를 강계시에서 진행(중방)
- 평성수의축산대학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노탄청년임산사업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제3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 전시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폐막(중방)

■ 7.28(목)

- 백마-철산 물길공사 완공단계 진입(중방)
- 신계고구마공장 건설 마감공사 주력(중방)
- 남북 수산협력분과 제1차 회의, 7.25~7.27 개성에서 진행(중방)

■ 7.29(금)

- 김정일, 원산만제염소 및 종업원에 운전기재 등 선물(중방)
- 김정일의 7.21 원산만제염소 현지도도 지시 관철을 위한 강원도 근로자들의 쉼기모임, 개선광장에서 진행(중방)

■ 7.30(토)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마감단계(전반 공정 95%) 진행(중방)

■ 7.31(일)

-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분과 제5차 회의, 7.28~7.30 개성에서 진행(중방)

■ 8.1(월)

- 김정일, 기업소·공장 등 혁명과업 수행 모범 일꾼 및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평방)

■ 8.2(화)

- 대흥단군 등에 50여개 농업과학기술지식 선전실 건설(중방)
- 전자공업성·동평양화력발전소 등 7월계획 완수(중방)

■ 8.3(수)

- 김정일, 혁명과업 수행 모범 보인 공장·기업소 일꾼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8.4(목)

- 김정일, 과학원·상사 연구원 등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가진 선형 일꾼들에 감사 전달(중방)

■ 8.5(금)

- 의학과학원 과학자·기술자들 각종 예방주사약 및 유전자재조합기술에 기초한 진단시약 개발 등으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중·평방)

■ 8.6(토)

- 청산리(평남 강서군), 70여 세대 현대적인 살림집 완공 및 새집들이(중방)
- 논설,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21세기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자' 제하로 공업·농업부문 및 전력생산 등 경제활동 매진 독려(중방)

■ 8.7(일)

- 인민경제 부문 7월 활동 실적 증대(평방)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공업총생산액 1.2배, 태천발전소 전력생산액 1.9배, 석탄생산 119%
- 백마-철산 물길공사, 대형 용수잠관공사 및 철도잠관공사 등 성과적 완공(중방)

■ 8.8(월)

- 김일성과 김정일의 평안북도 현지도도 40돌 기념보고회를 신의주시에서 진행(중방)

■ 8.10(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 당창건 및 광복 60돌 기념주화 발행(중방)
- 과학원 도시경영과학연구소 과학자들, 도시 원림녹화에 유망한 새로운 잔디 품종('평양2호') 육종(중방)
- 「제5차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 8.8~10 문산에서 진행(중·평방)

■ 8.11(목)

- 남포시와 에콰도르공화국 로하주 로하시 간 친선도시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서 조인(중방)

■ 8.13(토)

- 름산군(황북) 연풍사슴목장, 약재 채취기간을 맞아 약재생산 증대(중·평방)
- 임경만 무역상 일행, 러시아 방문 위해 평양 출발(중방)

■ 8.16(화)

- '선군으로 변모된 사회주의 조선의 토지' 제하로 김일성의 토지정리사업 업적 칭송(중방)

■ 8.18(목)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기존 오리목장을 종합목장으로 개건 확장(중·평방)

■ 8.20(토)

- 평안북도 등 풀베기 성과 소개(중방)
- 원산청년발전소 물길 굴 건설 빠른 속도로 추진(평방)
-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8.18~19 개성에서 진행(중방)
- 중국 정부 경제무역대표단, 평양 도착(중방)
- 시리아 농민총동맹 대표단, 평양 도착(중방)

■ 8.21(일)

- 강계시멘트공장 일꾼들, 연간 생산계획 108%초과 달성(중방)
- 흑룡탄광 일꾼들, 석탄생산 투쟁성과 소개(중방)
- 국토환경보호성, 강하천 관리 전개(중방)

■ 8.22(월)

- 대안친선유리공장 용해로 화입식(火入式)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8.23(화)

- 당창건 60돌 기념 전국과학기술발표회 개막(중방)

■ 8.24(수)

- 양강도 도시설계연구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8.26(금)

- 김정일, 김책공대 교원 및 과학원·인민병원 등 충성심 높은 근로자에 감사 전달(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자들, 구내 도로포장공사 완료(평방)
- 내각 췌 중앙기관 일꾼들,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장에서 금요노동 진행(중방)

■ 8.27(토)

-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기념 전국과학기술 발표회 폐막(중방)
- 제6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 경연 폐막(중방)

■ 8.28(일)

- 백마-철산 물길굴 공사 완료(중방)
- 외무성, 태국 외무성과 협상 및 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중·평방)

■ 8.29(월)

- 「9월방직공장」, 천 생산성과 초과 달성(중방)
- 「단천제염소」, 연간 소금생산 계획을 5개월 앞당겨 완료(중방)
- 순천화력발전소, 전력생산 확대에 매진(중방)

■ 8.30(화)

- 「과학기술 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노선」 제하로 과학기술 중시노선은 사상 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라 강조(중방)

■ 8.31(수)

- “박명천 동무가 일하는 공장” 창립5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방)
- 무역경제대표단, 중국 길림동북아시아투자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중·평방)

■ 9.1(목)

- 김정일,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시찰(중방)

■ 9.2(금)

- 제32차 전국농기계전시회(8.30~9.1)를 평남 숙천군에서 진행(중·평방)
- 전국과학기술발표회(8.30-9.1)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중·평방)
- 말레이시아 친선 협조 대표단, 조선-말레이시아 친선 리수복청년협동농장에 협조물자 기증(중방)

■ 9.3(토)

- ‘선군의 길 위에 일떠선 거창한 창조물들’ 제하로 선군정치 10년 동안 산업 건설을 비롯한 전반적 건설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주장(중방)

■ 9.5(월)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가 운영하는 「4월16일 염소목장」 시찰(중방)
- 함북 청진 실리카트 벽돌공장,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한 실리카트 벽돌생산 매진(평방)

■ 9.6(화)

- 김정일, 황해북도 미루벌 현지도(중방)
- 강계오리공장, 개건 현대화 공사 마지막 단계 추진(평방)

■ 9.7(수)

- 駐北 외국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성원들,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 참관(중방)

■ 9.9(금)

- 제6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9.5~8) 3대혁명전시관에서 폐막(평방)

■ 9.10(토)

- 청진 씨리카트 벽돌공장, 새로운 생산 공정으로 하루 35,000장의 벽돌 생산(중방)
- 함남 요덕군, 350세대의 문화주택(살림집) 건설 진행(중방)
- 문덕수산사업소, 연간 수산물 생산계획 130% 초과 달성(중방)

■ 9.11(일)

- 예성강발전소, “토언제”(흙 제방) 쌓기 총 공사량의 67% 진행(평방)
- 백두삼천리별 대흥단군 각 농장 일꾼과 농업근로자들, 감자 수확 총 집중(중방)

■ 9.12(월)

- ‘김일성 평안북도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를 신의주시에서 진행(중방)
- 개성시, 현대적인 살림집 130여 세대 완공 및 60여세대의 농촌 살림집 건설(평방)

■ 9.13(화)

- 과학연구사업 및 교육사업 기여 지식인 등에 국가학위직 수여(중방)
- 中 국가전력망공사 대표단, 北-中 수력발전회사 창립 50돌 경축행사 참석차 평양 도착(중방)

■ 9.14(수)

- 「조-중수력발전회사」 창립 50돌 경축집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평방)
-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국제규격화기구총회에 참석하는 국가품질감독국대표단, 평양 출발(중방)

■ 9.15(목)

- 김정일, 개건된 광포오리공장(함남 정평군 소재) 현지도(중방)
- 제2급속건설연합기업소, 어랑천발전소 건설 힘있게 추진(평방)
- 평남 북창오리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주력(중방)
- 양강도 당위원회, 삼수발전소 건설 주력(중방)

■ 9.16(금)

- 김정일, 단천(함남) 내화물공장 현지도(중방)
-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을 힘 있게 추진(중방)

■ 9.17(토)

- 김정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홍남제약공장 현지도(중방)
- 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 중국 방문위해 평양 출발(평방)
- 2005년 동북아 첨단기술박람회에 참가할 과학원장(변영립), 평양 출발(평방)
- 中 해관총서 대표단, 평양 도착(평방)

■ 9.18(일)

- 김정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방)

■ 9.20(화)

- 김일성의 부래산역·방화역 현지지도 60돌 기념보고회를 방화혁명사적지에서 진행(중방)
- 대표단(단장 양형섭), 쿠바·베네수엘라 방문을 위해 평양 출발(중·평방)
- 몽골 정부경제대표단, 평양 도착(중방)

■ 9.21(수)

- 제16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9.13-20)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평방)
- 김일성의 평양역 현지지도 60돌(45.9.22) 기념 보고회를 현지에서 진행(중방)

■ 9.22(목)

- 김정일, 916군부대 직속중대 및 966군부대 발전소 시찰(중방)
- 당 창건60돌 경축 국가산업미술전람회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평방)
- 방북 중인 중화전국총공회 대표단과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자들의 상봉모임을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장에서 진행(중방)

■ 9.23(금)

- 황북·함남 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 진행(중방)
- 김일성 노작 발표 40돌 기념 중앙보고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방)

■ 9.24(토)

- 김일성의 평양곡산공장 현지지도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함흥시(함남), 큰 규모의 수동저수지 완공-100여 정보의 논 새로 개간(중방)
- 쿠바 방문 대표단(단장 양형섭), 9.22 아바나 도착(중방) 및 9.23 쿠바 호세 마르띠 기념비에 화환 진정(평방)
- 조선노동당 친선대표단(단장 김남철), 중국 향발(중방)
- 북-몽골 친선 대표단(단장 문일봉), 몽골 향발(중방)
- 국토환경보호성 대표단(단장 김경준), 중국 향발(중방)

■ 9.25(일)

- 김정일, 삼수발전소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9.26(월)

- 백마-철산 흙물길 형성으로 평북의 곡창벌에 관개용수를 자연 흐름식으로 보장(중방)
- 홍남시 일꾼 및 근로자들, 용신지구의 저수지 건설 완공(평방)
- 김책수산사업소, 배만들기 새로운 방법으로 25톤급 만능선 3척 건조(중방)

■ 9.27(화)

- 당 창건 60돌 즈음 주체의 산업미술연구토론회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중방)
- 홍주청년 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3기의 발전기 조립 완료(중방)
- 농업과학원 황해북도 분원 축산연구소, 우량품종의 부립소 새로 육종(평방)
- 연산 군민발전소 건설 추진(중방)
- '과학기술교육의 전당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 제하로 김책공대 창립 57돌 축하(평방)
-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 세계직업연맹위원장이사회 제18차 회의 참가차 프랑스로 향발(중방)

■ 9.28(수)

- 김정일, 인민소비품 생산에 기여한 초산군안 일꾼과 지방산업공장들에 감사 전달(중방)
- 희천경질유리그릇공장(평북), 조업식 진행(중방)
- 駐北 인도네시아공화국 임시대리 대사 일행, '북-인도네시아 친선 약수협동농장'의 가을걷이 지원(중방)

■ 9.29(목)

-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가성소다 생산공정' 조업식 및 「회령5호광산」 건설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러시아 국제자선기금 대표단, 평양 도착(중방)

■ 9.30(금)

- 당 창건 60돌 기념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평방)
- 부전감자전분공장·2월25일광산·수성천2단계발전소 등 조업식 진행(중방)
- 駐北 캄보디아 대사관 성원들, 9.29 백석협동농장의 가을걷이 지원(중방)
- 駐北 이란 대사관 성원들, 새날농장의 가을걷이 지원(중방)

■ 10.2(일)

- 백마-철산 물길공사(총연장 270여 km) 준공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10.3(월)

- 개천철도국 구룡강 1호 청년발전소 건설 조업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명례군민저수지(황남) 건설 조업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연백제염소 정제소금공장, 3대혁명붉은기 쟁취(중방)

■ 10.4(화)

- 김정일, 계남목장에 운전기재 및 문화기재 등 선물 전달(중방)
- 라선기초식품공장 조업식 진행(중방)
- 전국연구토론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평방)
-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대회를 당 창건 기념탑 광장에서 진행(1방)

■ 10.5(수)

- 김정일, 대안친선유리공장 현지 지도(중방)
- 영월발전소 언제(댐) 준공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10.6(목)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철직장 100톤 전기로 조업 및 희천 동문2호발전소 완공 조업(중방)
-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조업(중방)
- 당 창건 60돌 기념행사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대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진행(중방)

■ 10.7(금)

- 조선통신사 보도, 당 창건 60돌 즈음 경제·문화 성과 총정리 발표(중방)
- 평양자전거 합영공장 건설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10.8(토)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김일성 현지지도 6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방)
- 3대혁명 붉은기 및 영예의 붉은기 수여 등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10.3 발표(중방)

■ 10.9(일)

- 김정일,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식 참석(중·평방)

■ 10.10(월)

- 북-중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인(중·평방)
-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에 기여한 중국인들에게 훈장 및 메달 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중·평방)

■ 10.11(화)

- 당 창건 60돌 경축 대표들, 대안친선유리공장 참관(중방)

■ 10.14(금)

- 「9월제철종합기업소」 삼화철 생산기지 조업(중방)
- 평성시(평남) 염소목장 건설 조업(중방)
- 駐北 중국 대사, 조-중 친선 택암협동농장의 가을걷이 지원(평방)

■ 10.15(토)

- 김정일의 온성군 현지도 30돌 기념 보고회를 현지에서 진행(중방)
- 강계시(자강도) 향로지구, 남천군민청년발전소 건설 조업(중방)
- 덕성군(함남), 5개월 동안 12개 중소형발전소 건설(중방)

■ 10.16(일)

- 문덕군, 해안방조제 공사 완공(중방)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해 투쟁 전개(평방)

■ 10.17(월)

- 황해북도, 서흥군 문무리와 립산군 상하리 수림지대에 평 1만여 마리 방사(중방)

■ 10.18(화)

- 제1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10.24-27 개최 예정(중방)
- 체신부문 일꾼들, 수도의 전신전화설비 개선·200여개 농촌 리의 “빛섬유통신화” 등 통신능력 확장·현대화 수준 제고(중방)
- 강선산업건설사업소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나이지리아 정부대표단, 평양 도착(평방)
- 민주공고 노동총연맹 대표단, 평양 도착(중방)
- 조선-독일 친선협회 대표단(단장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독일 향발(중방)

■ 10.19(수)

- 양기현동무가일하는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방)
- 대표, 유네스코 총회 제33차 회의에서 연설(중방)

■ 10.20(목)

- 평양종합인쇄공장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방)
- 원산-금강산 사이 철도 개통하여 10.10 첫 정기운행(중방)
- 입업성 대표단(단장 이진선),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입업분과위 제8차 회의 참가차 러시아 향발(중방)
- 駐北 인도 특명전권대사와 직원들, 조선-인디아 친선 갈천협동농장 가을걷이 지원(중방)

■ 10.21(금)

- 중앙정보통신국 창립60돌 기념 보고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방)
- 승호철도청년발전소 조업식 진행(중방)

■ 10.22(토)

- 송림(황북)-대안(평남) 사이 150톤급 자동차수송선 운항 시작(중방)
- 제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할 중국 대표 등 평양 도착(중방)
- 조선민주여성동맹 대표단(단장 노찬실 여맹 중앙위 부위원장), 몽골 향발(평방)
- 駐北 라오스 대사와 직원들, 10.21 조선-라오스 친선 대원협동농장 가을걷이 지원(평방)

■ 10.23(일)

-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된 유리들을 평양시 여객운수연합기업소 등에 공급(중방)
- 제2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 어랑천 1호발전소 발전기 회전자 조립 완료(중방)
- 전국적 범위에서 조류독감 예방 주력(평방)

■ 10.24(월)

- 제1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평방)
- 「전국 과학자·기술자 돌격대운동선구자대회」 평양에서 진행 예정(평방)
- 「성장 4호 발전소」 조업식을 현지서 진행(중방)
- 철도성 대표단 및 노동신문 대표단, 訪中 위해 평양출발(평방)

■ 10.25(화)

- 청년동맹 중앙위 제31차 전원회의를 평양에서 진행(중방)
- 해주 10월13일청년제련소 창립 20돌 기념보고회를 현지에서 진행(중방)
- 만경대 름트겐공장, 체외충격파 결석파쇄기 연구 제작(중방)

■ 10.26(수)

- 전국과학자·기술자 돌격대운동 선구자대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방)
- 과학원 레이자연구소, 레이자종합가공장치 연구 도입하는 성과(중방)
- 駐北 폴란드 대사와 직원들, '조선-폴란드 친선 장수원협동농장' 가을걷이 지원(중방)

■ 10.27(목)

- 우수기재취를 위한 농업부문 전국기술혁신경기 총화회의 평양서 개최(평방)
- 전국의학과학토론회, 10.24-26 평양에서 진행(중방)
- 과학원 생물분원 과학자들, 농작물 생육촉진제인 식물영양강화제 등 연구성과(중방)

■ 10.28(금)

- 김정일,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중방)
- 김정일·후진타오, '북-중 경제기술협조에관한협정' 조인식 참석(중방)
- '전통적인 친선의 화원' 제하로 북-중 친선은 두 나라 영도자들의 관심으로 발전(평방)
- '조-중 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 제하로 후진타오 방북 호의 표명(평방)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성공업지구에 개설(중방)
- 남북경추위 제1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중방)
- 북-중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중방)

■ 10.29(토)

- 김정일·후진타오, 대안친선유리공장 참관(중방)
- 후진타오, 용산농장 참관(중방)

■ 10.30(일)

- 김정일, 후진타오 환송(중·평방)

■ 10.31(월)

- 대안친선유리공장 종업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위한 쫓기모임 진행(평방)

- 내평2호군민발전소(강원도) 조업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경제대표단(단장 립경만 무역상), 남미 3개국(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향발(중·평방)

■ 11.1(화)

- 김정일, 평양시내 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중방)
 - 평양326전선공장, 평양승강기공장, 평양자전거합영공장 현지지도
- '천길 막장에 새겨가는 결사관철의 위훈' 제하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앞장서는 금골광산 광부들의 투쟁을 선전(중방)

■ 11.2(수)

- 출판일꾼 대표단(단장 립원보 출판지도국장) 중국 향발(중방)

■ 11.3(목)

- 농근맹 중앙위 제50차 전원회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방)
- 평양시 피복공업국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방)

■ 11.4(금)

- 최고인민회의 관계자 등, 11.3 평양 3.26전선공장 참관(평방)
- 북한-쿠바 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회 제24차회의 의정서」와 「2006년 상품 교류에 관한 의정서」, 아바나에서 조인(중방)

■ 11.5(토)

- 北-中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대표단, 제57차 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중·평방)

■ 11.6(일)

- 김정일, 군인들이 건설한 115호 오리공장(5만여 m²) 시찰(평방)
- 조류독감 방지를 위한 김정일의 대책지시와 부문별·지역별 활동 전개(중방)
- 김책공업대 정보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수재반 대학생들, 백두산 기상관측소 설비 현대화를 통해 발명권 획득(중방)

■ 11.7(월)

- 북-중 수력발전회사이사회 제57차 회의 결정서 조인(중·평방)

■ 11.8(화)

- 김정일, 새로 건설된 '내평2호군민발전소' 시찰(중방)
- 단천제련소(함남) 개건현대화 공사 완료 준공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5월12일대성공장 건설 준공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11.9(수)

- 김정일, 과학연구사업 모범일꾼들과 근로자들에 감사 전달(중방)
- 평양기관차대 김일성 현지도 60돌 기념보고회를 현지에서 진행(중방)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제17,18 조직갱 준공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순안농장, 北-독일 친선농장으로 명명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11.10(목)

- 국가비상방역위원회, AI 비상경보발령 하달(중앙 TV)
- 평양3.26전선공장·평양승강기공장, 김정일 현지도 관철 쫓기모임 진행(중방)
- 주북 외국 대사관 성원 및 국제기구 대표들, 평양3.26전선공장 참관(중방)

■ 11.11(금)

- 평양3.26전선공장·평양승강기공장에서 김정일 현지도 관철쫓기모임 진행(중방)

■ 11.12(토)

- 수동구(함남)에 새로 건설된 덕지강 7호발전소 조업식 진행(중방)

■ 11.13(일)

-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새로 건설된 내평2호군민발전소 참관(중방)
- KCC바둑프로그램이 10.29~30 일본에서 진행된 "세계 컴퓨터바둑도전자대회"에서 우승(중방)
- 대안친선유리공장을 '21세기 北中 친선의 상징'으로 강조(중방)

■ 11.14(월)

- 김일성을 평원군(평안남도) 원화협동농장 명예농장원으로 추대 5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방)
- 온천군 위생방역소,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지휘하에 조류독감 예방사업 성과(평방)
-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국가품질감독국 등 관계일꾼들의 사업전개 활발(중방)

■ 11.15(화)

- '선군혁명노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노선' 題下 연속해설을 통해 선군 혁명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진로를 밝힌 혁명노선이라고 강조(중방)
- '올해 선군의 기치밑에 솟아난 기념비적 창조물들' 題下로 당 창건 60돌을 맞아 130여개의 공장, 발전소, 기업소들이 건설되었다고 선전(평방)

■ 11.16(수)

- 北-베네수엘라, 11.8 무역협조 협정 체결(중방)
- 북·러, 「2005-2007년도 문화 및 과학교류계획서」 조인(중방)

■ 11.19(토)

- 김일성의 인민경제대학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를 현지에서 진행(중·평방)

■ 11.20(일)

- 각지의 가금목장들에서 조류독감 예방사업 강화(중앙 TV)

■ 11.21(월)

- 김정일, 백마-철산 물길공사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평남 증산군·자강도 초산군 등 「가을철 국토관리」 성과 선전(중방)

■ 11.22(화)

- 과학원 함흥분원 유기화학연구소, 새로운 살충제와 살초제 등 완성(평방)

■ 11.23(수)

- 신천군(황남),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으로 나무심기 추진(평방)

■ 11.24(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과학원'을 '국가과학원'으로 개명(중방)
- 소프트웨어산업총국 대표단(단장 한우철 총국장), 러시아 방문(평방)
- 지진국 대표단(단장 강신동 국장), 중국 방문(평방)

■ 11.25(금)

- 부흥수출가공사업소 창립 2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평방)
- 각지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성과(중방)

■ 11.26(토)

- 전기석탄공업부문 일꾼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평방)

■ 11.27(일)

- 김정일,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단위들에 감사 전달(중방)

■ 11.28(월)

- 평안북도 김일성 현지도 60돌 기념보고회, 신의주시에서 진행(중방)

■ 11.29(화)

- 신의주항공구락부 김일성 현지도 6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방)
-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 題下로 과학기술 중요성 강조(중방)
- 평양 안악중학교, 토끼 기르기 경험 토론대회 진행(중방)
- 문답, '전국 각지에서 힘있게 진행되고 있는 국토관리사업' 題下로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 성과 설명(중방)

■ 11.30(수)

- 김정일, 당의 경공업 정책 관철에 성과를 거둔 평양방직공장·선교편직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고원군 등의 일꾼들에 감사 전달(중방)
- 직총 창립 60돌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평방)

■ 12.1(목)

- 제1차 전국경락학술토론회, 11.29~30 고려의학과학원에서 진행(중방)
- 전국 「직총」일꾼 열성자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평방)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해 가는 노동계급' 題下로 평양승강기공장·평양36전선공장 등 생산성과 선전(중방)

■ 12.3(토)

- 전국 직맹 일꾼 열성자대회 참가자, 만경대 등 평양시내 참관(중방)
- 기상수문국 대표단(단장 고일훈 기상수문국장), 중국 향발(중·평방)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미간 접촉을 갖고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협의 촉구(중방)

■ 12.4(일)

- 김정일,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현지지도(중방)
- '친선의 정 안고 쏟아지는 유리폭포' 題下로 대안친선유리공장은 북 중친선의 아름다운 상징이라고 강조(중방)

■ 12.5(월)

- 김정일, 백마-철산물길 현지시찰(중방)
-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60돌 기념보고회, 함흥시에서 진행(중방)
- 북·중 지진국, 11.25 베이징에서 '2006~2007년도 과학기술교류계획서' 조인(중방)

■ 12.6(화)

- 김정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및 북중전극공장 현지지도(중방)
- 김정일, '2월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에 감사(중방)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 드높이' 題下로 량담수산협동조합 소개(중방)
- 황해북도 중소형발전소 전력생산 내실 있게 진행(중방)
- 남포시-생끄뜨빠제르부르그시 친선도시 설정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중방)
- 북-러 생끄뜨빠제르부르그시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회담록,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인(중방)

■ 12.7(수)

-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 12.6~7 평양에서 진행(중방)

■ 12.8(목)

- 기상수문국, 中 기상국과 기상과학기술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3차 회담록 조인(중방)

■ 12.9(금)

- 김정일의 평안북도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를 신의주시에서 진행(중방)

■ 12.10(토)

- 김정일, 원군사업 모범 평양 낙랑구역 축산가내반 반장 등에 감사 전달(중방)
- 김정일의 함경북도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를 청진시에서 진행(중방)
- 김책공업대학 대표단(단장 홍서헌 총장), 중국 방문(중방)
- 조선건축가동맹 대표단(단장 박길우 부위원장), 몽골 방문(중방)
- 스웨덴 외무성 대표단, 평양 도착(중방)

■ 12.12(월)

- 김정일 노작 '농업근로자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20돌 기념 연구토론회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방)

■ 12.13(화)

- 김정일 노작 '농업근로자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20돌 기념보고회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방)

■ 12.14(수)

- 김정일, 영남배수리공장에 새로 건설된 2호도크 현지지도(중방)
- 전국농촌청년 작업반장 결의모임을 곡산군 평암협동농장에서 진행(중방)
- 평안남도 근로자의 쉼기모임을 남포시에서 진행(중방)

■ 12.15(목)

- 제인 구돌연구소 대표단, 이명국 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 부소장 및 평양올곡중학교 교원·학생들과 담화(평방)

■ 12.16(금)

- 김정일, 용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직장들 현지지도(중방)

■ 12.19(월)

- 전국농업부문 「26호모범기대 운전공 경험발표회」 진행(중방)
- 당 농업정책을 농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고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며 농업생산의 장기적 발전을 보장하는 우월한 정책이라고 선전(중방)

■ 12.20(화)

- '일심단결의 합성이 메아리친 한 해' 제하로 10월 黨 창건행사를 비롯 농업·공업·주거부문 등의 올해 성과 선전(중방)

■ 12.21(수)

- 김정일 '軍 최고사령관' 추대(1991.12.24) 관련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을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평방)

■ 12.22(목)

- 김정일 현지지도 강령사업 관철 평북 근로자 쉼기모임, 신의주광장에서 진행(중방)

■ 12.23(금)

-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1차회의 의정서」, 베이징에서 조인(평방)

■ 12.24(토)

- 김정일, 돼지원종장과 육류냉동고시설 현지지도(중방)
- 「북·중 해상에서의 원유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베이징에서 조인(중방)
- 북한 정부대표단(단장 노두철), 중국 중배엽 부총리와 담화(중방)

■ 12.25(일)

- ‘농업전선에 총집중 총동원한 해로 역사에 빛나는 2005년’ 제하로 농업생산에서 혁신적인 전환을 이룩한 해라고 평가 선전(중방)

■ 12.26(월)

- 인민생활공채 4차 추첨행사, 해주시에서 진행(중앙 TV)
 - 1차(2003.12, 평양), 2차(2004.7, 사리원), 3차(2004.12, 평남 평성)
- 김일성 남포시 현지지도 60돌 기념보고회, 남포극장에서 진행(중방)
- 北-日 정부간 부국장급 접촉, 12.24~25 베이징에서 진행(중·평방)

■ 12.27(화)

- 김정일의 인민군 부대·기업소 등에 대한 현지지도 위대성 선전(중방)
- 2005년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선군의 사상과 신념으로 부강번영의 한 해였다고 평가(중방)

■ 12.29(목)

- 대각청년발전소 준공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북창오리공장 개건현대화 준공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12.30(금)

- 김정일, 삼수발전소 건설 지원 일꾼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영남배수리공장 종업원들, “김정일 현지지도 말씀” 관철 쫓기모임 진행(중방)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조업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
- 남양정제소금공장 개건 현대화 준공식을 현지에서 진행(중방)